Entertainment p/18



원조디바들 일제히 앨범낸다

metro®

메트로 2014년 3월 27일 목요일 제2943호 www.metroseoul.co.kr

Today p/22



밥맛은 돌솥밥이 최고다?



헌화 마친 정치인들 26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용사 4주기 추모식에서 국회의원, 장관 등 정치인들이 헌화한 뒤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영어 통합형 전환 다소 쉬워질듯

듣기평가 문항 수 5개 줄고 읽기는 늘어나

2015 대학수능 기본계획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영어영역은 수준별이 폐지되고 통합형 시험으로 치러진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11월 13일에 시행되는 올해 수능은 국어·수학영역에서 수준별 시험이 유지되고 영어영역이 통합형으로 전환된다. 통합형으로 전환된 영어의 출제 범위는 '영어Ⅰ'과 '영어Ⅱ'다. 듣기 평가의 문항수가 지난해보다 5개 줄고, 읽기 평가는 그만큼 늘어나 듣기^읽기 평가가 각각 17개, 28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70% 수준으로 유지된다. 특히 중요 개념이나 원리의 활용, 지문 재구성, 그림·도표 등의 자료 활용, 문항 변형 등의 형태로 이뤄진다.

국어·수학영역은 지난해처럼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수험생의 학습 부담 경감 차원에서 국어 B형, 수학 B형을 동시에 선택하는 것은 제한된다.

김희동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영어영역이 쉽게 출제됨에 따라 변별력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어 변별력이 떨어지면 국어·수학·탐구영역에서 변별력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영어 학습 대비법으로는 "전년보다 영어가 쉽게 출제된다고 해서 공부를 더 소홀히 할 수 있는데 6·9월 모의고사 난이도보다는 높게 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오종운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연구소 평가이사는 "2015 수능 영어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세부 유형의 문항 수 변화에 맞춰 읽기 부문에서 대의 파악·간접 쓰기·세부 사항 등의 문항 수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며 "빈칸 추론 문항 수는 축소됐지만 변별력이 높은 유형이므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난이도 높은 문제까지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탐구영역의 최대 선택과목 수는 사탐·과탐 2과목, 직탐 1과목으로 종전과 같다. 다만 직탐은 전문계열의 전문 교과를 80단위 이상 이수해야만 응시할 수 있다. 제2외국어·한문은 1과목 선택할 수 있다.

평가원은 수험생들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을 진단하고 새로운 문제 유형에 적응할 기회를 주고자 6월 12일과 9월 3일 두 차례 모의평가를 진행한다.

6월 모의평가는 3월 31일~4월 10일에 신청을 받고, 성적은 7월 3일에 통지된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8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재학생은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다.

점자 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올해부터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이 제공된다.

성적은 12월 3일에 통지되고, 성적통지표에는 수험생이 응시한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된다.

평가원은 2015학년도 수능의 세부 계획을 7월 7일 공고할 예정이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대형 유통업계 甲횡포 여전

납품사 서면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초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됐던 '갑을 논란'으로 국가기관까지 나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국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지난해 4~10월 서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업체 1761곳 가운데 325곳(18.5%)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겪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불공정 거래 행위 가운데 가장 많은 응답으론 거래 시 문서로 된 약정서를 받지 못한 경우가 1위를 차지했고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부당 반품, 판촉 비용 전가 등이 뒤를 이었다.

백화점 납품업자의 경우 응답업체(478개사)의 23.4%(112개사)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홈쇼핑 업체의 위법 행위 경험 비율은 16.0%였으며 편의점(15.3%), 대형 서점(15.3%), 인터넷 쇼핑몰(9.8%) 등이 있었다. 전문 소매점은 응답업체가 105곳으로 가장 적었지만 위법 행위 경험 비율은 23.8%(25개사)로 가장 높았다.

또 전체 응답 업체 1761개 가운데 31곳(1.8%)은 경영정보 제공을 부당하게 요구받았으며 세부적으로 다른 유통업체 매출정보(16건), 상품 원가 정보(14건), 다른 유통업체 공급 조건(11건) 등 순이다. 부당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는 전체의 1.8%(31개사)였으며, 대형유통업체 주도의 판촉행사 비용을 절반 이상 과도하게 부담했다는 납품업체는 1.7%(30개)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주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직권 조사를 할 계획이다. /정영일기자 prms@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캠핑용품 병행수입 현주소

기자 수첩
정 영 일
<생활레저부 차장>

최근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캠핑용품의 병행수입 등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지난 3월 캠핑아웃도어진흥원이 발표한 '병행수입 활성화에 따른 캠핑 시장의 영향과 대응'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를 포함한 병행수입은 2011년 대비 2배나 증가한 3조원을 넘어섰다.

텐트만 보더라도 2012년 상반기 2251만7000달러(약 243억1900만원)에서 2013년 상반기에는 4725만8000달러(약 510억3900만원)로 110%나 수입이 증가했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외 특정 브랜드 제품은 국내외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 등의 방법으로 눈을 돌리는 현상이 커진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업체 텐트는 일부 품목에서 국내와의 가격 차이는 1.92배나 났다.

이런 가운데 병행수입이 국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캠핑용품의 가격도 꾸준히하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병행수입 활성화는 가격 인하와 제품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사후관리(AS) 문제 및 위조 상품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등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국내에는 관세청 산하 지식재산권보호협회 내 단순한 병행수입분과 형식만으로는 병행수입협회가 활동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결국 하루라도 병행수입 통관인증제 보완과 전문단체 설립을 통한 위조 상품 유통의 대응 등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를 마치고 25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테겔공항에 도착,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 통일경험 독일 방문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 합의

박근혜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국빈 방문지인 독일 베를린에 안착했다.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마치고 전용기편으로 암스테르담을 떠나 베를린 테겔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은 도착 다음날인 26일 독일 통일의 상징이자 분단 시절 동·서독의 경계로 세계의 유력 지도자들이 방문하거나 연설했던 브란덴부르크문을 시찰한 뒤 오랜 친분을 쌓아온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27일에는 한스 디트리히 겐셔 전 서독 외교장관과 로타어 데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 등 독일 통일의 주역 6명을 잇달아 만나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에 관한 조언을 들을 예정이다. 28일에는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옛 동독 지역을 방문한다. 드레스덴공대 연설에서 '드레스덴 통일 독트린'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 강화 차원에서 가까운 시일 내 한·미·일 6자 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은 6자 회담 재개와 관련해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 아래서 회담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중국이 대북 설득 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중국의 협력을 확보하는게 중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 및 3국간 안보 협력 차원에서 ▲한미일 6자 회담 수석대표 회의 ▲한미일 3국 국방부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2008년 이후 5차례 실시된 '한·미·일 안보토의(DTT)'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DTT는 이르면 다음달에도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김한길(왼쪽)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창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뒤 손을 잡고 만세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출범

공동대표에 김한길·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신당으로서 공식 출범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김한길·안철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1년 임기의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창당대회에서 "60년 민주당 역사와 안철수의 새정치가 만나서 드디어 새정치민주연합이란 새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며 "우리 정치사에 남을 큰 결단으로 오늘의 창당을 있게 한 안철수 공동대표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달라"고 말했다.

안 공동대표는 "독선과 아집, 부정부패,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서는 독하게 싸울 것"이라며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다. 민생과 국익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선언문에서 ▲정의로운 사회 ▲통합된 사회 ▲번영하는 나라 ▲평화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 등을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이날 5000여 명의 지지자들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대의원 300명 중 254명이 참석했다.

/조현정기자 jhj@

북, 1200km 노동미사일 2발 발사

천안함 피격 4주기 맞아

북한이 천안함 피격사건 4주기인 26일 새벽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무력 시위를 했다.

북한이 이날 새벽 노동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006년 7월 5일과 2009년 7월 4일에 이어 3번째로 근 5년 만에 처음이다. 노동미사일의 사거리는 1200km로 최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로켓 및 신형 방사포와 달리 중거리 미사일로 분류된다. 이 미사일은 일본 열도와 주일 미군기지 타격이 가능하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FE) 연습 시작 직전인 지난달 21일 'KN-09'로 불리는 300mm 신형 방사포 4발을 동해로 발사했고, 같은 달 27일에는 사거리 220km인 스커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하는 무력 시위를 벌였다.

또 이달 들어 3일에는 스커드-C 혹은 스커드-ER로 추정되는 사거리 500여km의 탄도미사일 2발을, 4일에는 300mm 신형 방사포를 발사한 데 이어 16일 '프로그(FROG)'로 추정되는 사거리 70km의 단거리 로켓 25발을 발사했다. 22~23일에도 단거리 로켓 46발을 잇달아 발사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히 유엔 안보리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mjkim@

미, 중고 전투기 한국에 임대 검토

한국 공군이 차기전투기(F-X) 및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하게 될 공중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군이 보유한 중고 전투기를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공군의 한 관계자는 "F-5와 F-4 등 노후 전투기가 도태되는 와중에도 공중 전력 보강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아 전력 공백 타개 방안으로 중고 전투기 임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미들급' 전투기가 주로 부족하기 때문에 미군이 보유한 F-16을 20~60대 정도 임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고 전투기 임대는 결정만 하면 2~3년 내에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고등훈련기인 T-50 개발이 지연될 때도 공군은 미군의 T-38 훈련기를 임대해 10년 이상 사용한 적이 있다.

/조현정기자 jhj@

서울시 400개 등록규제 전수점검

정부가 올해 경제 규제를 10% 줄이겠다고 밝힌 것에 발맞춰 서울시도 '규제개혁 추진단'을 발족, 생활과 밀접한 등록 규제들을 개선한다. 대한항공이 추진했던 송현동 일대 7성급 호텔 건축이 다시 논의될지 주목된다.

규제개혁 추진단은 26일 부시장단 연석회의에서 역할 분담을 한 데 이어 25개 자치구 부구청장을 소집해 개선할 생활 규제들을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에는 400여 개의 등록 규제가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전수 점검할 예정이다. 음식점·헬스장 허가부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위반 시 등록 취소까지 모든 등록 규제 사안이 점검 대상이다.

주용태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정부의 법 개정이 이뤄지면 그에 따른 조례와 규칙 개정도 서두를 계획"이라며 "사례를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관 부서와 이해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호텔 건립 문제 같은 민감한 사안도 추진단에서 논의된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일대 3만7000여㎡에 7성급 호텔 건축을 추진해왔으나 학교 200m 이내 관광호텔을 신축할 수 없다는 법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전날 정부가 학교정화위원회 훈령을 제정해 설립 허가의 물꼬를 터주겠다고 밝히면서 청신호가 켜진 분위기다. /김민준기자 mjkim@

경쟁사 임직원 정보 불법 수집

CJ대한통운 고객정보 유출이어 또 물의

국내 최대 물류·택배회사인 CJ대한통운이 고객정보 유출에 이어 이번에는 영업활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경쟁사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6일 경인사업본부 인천지사 김모 영업지점장과 운영지점장 등 2명, 아주그룹 간부 이모씨 등 3명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의혹이 있어 수사를 벌이는 한편 지난 20일 인천시 중구 항동 CJ대한통운 경인사업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영업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 중에는 아주그룹 본사와 계열사 임직원 3000여 명의 이름·직책·휴대전화·주소·e메일 등 개인정보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이 아주그룹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아주그룹의 아스콘과 건설 자재 등의 물량 수주 등 영업 활동에 이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CJ대한통운에 재직 중이던 조모씨가 회사에 불만을 품고 경찰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는 CJ가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 구조조정 등으로 영업부로 밀려나 회사에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며 "조씨는 회사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지시했다고 말하고 있고, 아주그룹의 임직원 명단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CJ대한통운이 아주그룹 이외에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상공회의소, 인천시청 등 관공사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도 수집했다는 진술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회사 지시로 아주그룹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조씨의 진술에 따라 대한통운 영업지점장과 운영지점장들을 소환해 불법 사실이 적발되면 개인정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도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대한통운 택배기사와 지점장 등이 합세해 382명 고객의 정보를 팔아넘긴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허리둘레 5%줄이기 지원사업' 26일 서울대 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 박준동(왼쪽) 부소장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유석쟁 전무의 허리둘레를 재고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6개월간 공공·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의료·체육·영양 분야의 전문가를 투입해 임직원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제공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일당 구속

서울 서초경찰서는 보이스피싱으로 저금리인 '국민행복기금' 대환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서민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윤모(42)씨 등 15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미리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박모(45)씨 등 786명에게 전화를 걸어 모두 12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윤다혜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숭례·광화문 복원에 총체적 비리

신응수 대목장 횡령 ,공무원 뇌물수수 드러나

숭례문과 광화문 복원 사업에 사용된 목재 일부가 횡령됐고, 문화재청 공무원들은 뇌물 수수 등 비리를 저질렀다.

경찰청은 26일 광화문 복원용 금강송과 숭례문 복구용 국민 기증목을 횡령한 혐의로 신응수 대목장을 입건하고, 문화재청 공무원 최모(46)씨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시공업체 J사 대표 김모(76)씨는 특경법상 횡령, 뇌물공여 및 문화재 수리 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총 2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수사 결과 신 대목장은 광화문 복원용으로 공급받은 금강송 4주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목재 창고에 보관해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금강송은 1주에 약 1500만원씩 총 6000만원어치에 달한다.

또 광화문 복원에 사용할 나무를 지급해달라고 문화재청에 요청한 뒤, 정작 문화재청이 나무를 구해주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나무를 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5월에는 숭례문 복원용으로 공급받은 국민 기증목 154본을 경복궁 수라간 복원공사 등 다른 공사에 사용하는 등 문화재청에 반환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신응수 대목장의 문화재 수리업체 S사는 경복궁 복원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시공업체(원청) J사에 2500만원을 주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받기도 했다. J사는 이 밖에도 8개의 문화재 수리업체에 6억7500만원을 받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 공무원 6명은 J사로부터 월정금 또는 명절 선물 명목으로 총 4200만원의 뇌물을 받아왔다. 또 문화재위원 등으로 구성된 광화문·경복궁 복원 자문위원 5명은 회의비·명절 선물 명목으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40만원에서 890만원씩 2730만원을 받아오기도 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일당 5억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검찰, 벌금 강제집행

검찰이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형 노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26일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하여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대검은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 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향후 검찰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벌금도 강제집행 대상”이라며 “현지 광주지검에서 구체적인 형 집행정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허 전 회장은 조세 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허씨는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 도피했다가 지난 22일 귀국했으며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당 5억원’인 노역을 하고 있다.

/김민준기자



고사리손 소방대원 서울 구로소방서가 26일 오전 구로구 본서에서 예일유치원 원생들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구로소방서 제공

동대문·사당·선릉역서 문화 공연

2014년 서울메트로 아티스트들의 문화 공연이 지하철역에서 펼쳐진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제6기 서울메트로 아티스트’ 31개 팀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선릉·사당역 예술 무대에서 활동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인디 음악과 분위기 있는 클래식이 가장 많으며 국악, 댄스, K-팝부터 팝페라, 아카펠라까지 다양하고 이색적인 공연들이 펼쳐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2호선 사당역과 선릉역,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등 3개 역에서 역별로 특화된 장르의 공연을 실시한다. 단 2개월마다 장르를 바꿔가며 공연이 펼쳐진다.

이달 사당역에서는 클래식·통기타·K-팝 공연을, 선릉역에서는 인디밴드·아카펠라 등 노래 공연을,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는 국악·재즈·댄스·라틴팝 공연이 열린다. 공연 일정은 서울메트로 홈페이지 문화마당(www.seoulmetro.co.kr/cultur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아현고가도로 역사속으로

서울시가 26일 오전 아현고가도로의 마지막 교각을 들어내면서 아현고가도로 철거 공사를 마무리했다.

아현고가도로는 1968년에 준공돼 노후된 탓에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으나 보수에 80억원, 유지·관리에 매년 4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자 서울시는 철거를 결정하고 지난달 10일부터 근로자 3800명, 장비 850대를 동원해 작업해왔다.

시는 다음달부터 신촌로와 마포로를 잇는 2.2㎞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공사를 시작해 8월 개통한다. 8월 충정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들어서면 그동안 신촌로터리에서 웨딩타운까지만 운영되던 신촌로, 마포대교에서 애오개역(도심방면)까지 운영되던 마포로가 충정로 미동초교 앞까지 연결돼 도심으로 접근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면 버스 통행 속도가 기존 17.2㎞/h에서 22.9㎞/h로 약 33% 향상돼 통행시간이 도심 방면과 외곽 방면 모두 3분가량씩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준기자

주가조작 CNK대표 구속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2년 넘게 해외에 체류하다 최근 귀국한 오덕균(48) 대표가 26일 구속됐다.

오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오 대표는 구속이 확정되면서 당분간 서울구치소와 서울중앙지검을 오가며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윤다혜기자 ydh@

안전공단 군산에 지도원 개원



안전보건공단은 전북 군산시에 소재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건물에 ‘전북서부지도원’을 개원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이번 개원으로 이 지역 약 3만여개 사업장, 23만여 근로자가 안전보건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국내외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서울시 금천구는 우수 중소기업들의 판로 개척과 수출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국내외에서 열린 전시회에 참가한 금천구 소재 기업이다.

공공시설에 심장충격기 설치

서울시 강동구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내 관공서·공공복지시설 등에 359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설치 위치는 강동구보건소 홈페이지(http://health.gangd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6640번 버스정류장 신설

서울시 구로구는 천왕2지구에 위치한 연지타운2단지 앞에 6640번 버스정류장을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버스는 천왕동·신도림동 등 구로지역 일대를 경유해 마포·영등포·양천을 지나는 노선이다.

여객기 탑승객 보상금 지급 착수

중국 보험사들…일부선 "기체발견 안돼 성급"

말레이시아 당국이 실종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가 추락, 생존자가 없다고 발표하자 중국 보험사들이 탑승객 가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다.

26일 홍콩 영자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사 측에 긴급 공지를 내려 보험 가입 실종자들의 친지에게 신속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라고 했다.

탑승객 중 53명이 가입한 중국 핑안보험은 지난 25일까지 가입자 가족 24명에게 1050만 위안(약 18억2450만원)을 지급했다. 32명이 가입한 중궈런서우보험도 일곱 가족에게 417만 위안을 지급했다. 중궈런서우보험 측은 전체 보상액이 900만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탑승객 중 10명이 가입한 독일 보험사 알리안츠 측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뒤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벌써부터 보상에 나선 것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이 말레이시아 당국에 실종기 수색을 계속해달라고 요청, 아직 탑승객들의 사망 사실이 공식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베이징 가오써 법률회사의 리빈 변호사는 "아직 기체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탑승객이 사망했다고 선언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보험사들이 이런 상황에서 보상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탑승객 가족들은 보험사의 보상 이외에도 최소 17만5000달러씩을 항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말레이시아 항공은 승객 1인당 5000달러를 위로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항공기 사고를 추락으로 결론 낸 것과 관련, 현지에 정부 특사를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리커창 총리도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항공기 사고 내용을 조사하는 데 중국 전문가들을 참여시킬 것을 말레이시아 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중국 최고지도자들의 이 같은 발언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사고기의 잔해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추락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을 중국이 마뜩지 않게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그랜드캐니언 장관 감상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니언의 장관을 더 잘 구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관람용 스카이워크의 유리창 청소를 위해 25일(현지시간) 기술자들이 밧줄에 매달려 있다. 스카이워크는 밑바닥이 유리로 돼 있어 관광객들은 걸어가며 아래쪽에 펼쳐진 그랜드캐니언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다. /AP 연합뉴스

32년 복역 살인수 자유의 몸으로

LA 법원 석방명령 내려

'살인 누명'을 쓰고 32년 동안 교도소에 갇혀있던 미국 여성이 자유의 몸이 됐다.

25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은 1급 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메리 버지니아 존스(74)에 대한 유죄 평결이 무효라고 판시, 즉각 석방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존스의 과실치사죄는 인정했다. 하지만 그의 형량보다 이미 11년이 지났기 때문에 존스는 이날 석방됐다.

존스는 1981년 남자친구가 벌인 마약 거래 범죄에 연루돼 졸지에 살인강도범이 됐다. 그의 남자친구는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형 집행 전 교도소에서 숨졌다.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존스도 1급 살인과 납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평결을 받았다.

당시 존스를 기소한 검찰은 그가 남자친구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겁에 질려 어쩔 수 없이 현장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다. 존스의 석방 소식에 가족들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존스는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의 법과전문대학원이 운영하는 '죄 없는 기결수 석방 운동' 덕분에 무죄로 방면될 수 있었다. USC 학생들은 존스가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한 사실을 밝혀 그의 범행 가담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조선미기자

졸음운전 사고 운전사 중형

일본 법원이 졸음 운전으로 45명의 사상자를 낸 버스운전사에게 징역 9년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2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군마현 마에바시 지법은 승객 7명이 숨지고 3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버스운전사 고노 가잔에게 벌금 200만 엔(약 2100만원)과 함께 이 같은 형량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사고 전 졸음을 느끼면서도 운전을 계속한 것은 '프로 기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판시했다.

변호인은 고노가 중증 '수면시 무호흡증후군(SAS)' 때문에 운전 중 갑자기 잠이 들어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발생 20분 전부터 졸음이 왔지만 고노가 계속 운전을 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조선미기자


ДЕРЖИТЕСЬ ЗА ПОРУЧНИ

Одним цветом. Ночью картинка перед глазами меняется чаще

에스컬레이터 관리인 등장 '눈길'

metro Russia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시 지하철역에는 에스컬레이터를 관리하는 이색 직업을 가진 여성이 있다. 이름하여 '엘리베이터걸'이다.

지하철역(즈비니고로드스카야)에서 에스컬레이터 관리인으로 7년째 일하고 있는 이라이다 사무세예바. 그는 "직장에 출근할 때는 항상 화장을 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쓴다"며 "매일 수천 명의 시선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람이 많은 오전 8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7시까지의 출퇴근 시간에는 미소로 승객들을 맞이하려고 노력한다"며 "승객들이 에스컬레이터 통제실을 두드리며 인사를 하거나 고맙다는 말을 할 때면 힘이 절로 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직업 때문에 특이한 질문을 받기도 한다. 사무세예바는 "나를 지하철 안내원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목적지까지 가려면 어디서 환승해야 하는지, 몇 호선을 타야 하는지를 묻기도 한다"며 "에스컬레이터를 움직이는 페달은 어디 있는지, 에스컬레이터를 작동시키기 위해 계속 페달을 밟고 있느냐는 엉뚱한 질문을 받을 때도 있다"고 했다.

에스컬레이터 관리인은 보통 12시간 동안 근무한다. 사무세예바는 "전체 근무시간 중 10시간 정도를 좁은 통제실에서 보낸다"며 "통제실에는 에스컬레이터 작동 기기와 각 지하철역에서 근무하는 관리인과의 통신을 위한 전화기만 놓여있다. 통제실에는 개인 물품 반입이 금지돼 작은 손거울조차 가지고 갈 수 없다"고 독특한 근무 환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또 "시민들은 우리가 하루 종일 통제실에 편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줄 안다"며 "비상 사태 발생 시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빠르게 중단해야 하고 승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직업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알료나 보브로비치 기자·정리=조선미기자

반려동물 전용택시 운행 '인기'

metro Peru


Taxi-Pet: un negocio pensado en la comodidad de mascotas y dueños

동물을 사랑하는 페루인이 반려동물 전용 택시를 만들어 화제다.

애견인 글렌다 아기레는 지난해 6월 택시펫(Taxi-Pet)이라는 회사를 설립, 동물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평범한 가게를 운영하던 아기레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은 아픈 경험 때문이다. "유기견들을 집에서 길렀는데 그중 한 마리가 많이 아팠어요. 급히 병원에 데리고 가야 했는데 택시 잡는 데만 한 시간이 걸렸죠. 아무도 버려진 동물을 태우려 하지 않았거든요."

택시펫은 고객의 집에 방문해서 동물을 태우고 병원에 내려준 뒤 치료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다가 동물을 다시 집까지 바래다준다. 택시펫은 모든 서비스를 동물 중심으로 운영한다. 차 안에 탄 동물이 불안해하거나 흥분하면 곧장 물을 마실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차를 멈추고 동물을 안정시킨다.

반려동물 전용 택시의 인기는 폭발적이다. 입소문을 타고 주문하는 사람들이 연일 증가세다. 아기레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매출이 50%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내년 초부터는 운행 지역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리=조선미기자

market index <26일>

코스피	1,964.31	(+23.06)
코스닥	544.13	(+5.08)
금리(국고채 3년)	2.89	(+0.01)
환율(원·달러)	1075.00	(−4.40)

뉴스&뉴스



암 꽃게 30% 싸게 판매 26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봄철 암꽃게를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내국인도 인증서 없이 쇼핑

●내국인도 올해 상반기 안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을 통해 홈쇼핑 직접 구매를 할 수 있게 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련 부처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던 이 같은 방안을 오는 6월부터 내국인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액티브X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김현정기자

예탁원 고졸인턴사원 채용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8일까지 고졸 인턴사원 채용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2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재학 중인 고교의 동일 전공 내 전 학년 종합 내신등급이 2.0등급 이내이면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sd.or.kr)와 전화(02-3774-3151,3154)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정기자

연금복권520 제143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20년	1조	336815
		6조	364784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350201
4등	100만원	각조	39352
5등	2만원	각조	946
6등	2000원	각조	76,57
7등	1000원	각조	1,5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2만6000달러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6000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국민계정(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2만6205달러로 2012년 2만4696달러보다 1509달러(6.1%) 늘었다.

2007년 2만 달러에 진입한 1인당 국민소득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1만 달러대로 떨어졌다가 반등했다. 하지만 2011년 2만4302달러에서 2012년 2만4696달러로 394달러 늘어나는 등 증가폭은 둔화했다. 2013년 중 실질 GNI는 지난해보다 4.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질 GNI는 물가 등을 감안한 국민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한편 지난해 실질 GDP는 2013년 중 3.0% 성장해 전년 수준(2.3%)을 넘어섰다.

한은 관계자는 "민간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지식재산생산물 투자와 2012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건설 투자가 증가했고, 수출이 견조하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지기자 minji@

'갤S5 출시일' 계산 바쁜 이통3사

영업정지 맞물리면 큰 손해 '조기판매' 무산에 SKT 울상
예정대로 내달 11일 나오면 LG유플 3주 단독가입 쾌재

삼성전자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5'의 출시 일정을 놓고 이동통신사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또한 갤럭시S5의 출고가 등이 결정되면서 경쟁 제조사들은 향후 신제품 출시를 두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전략 모색에 들어갔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이통사 영업정지 일정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가면서 갤럭시S5 출시가 경쟁사에 비해 최대 한 달가량 늦어지기 때문에 최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27일 조기 출시설이 제기됐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미 27일에 맞춰 제품을 공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대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신종균 삼성전자 IM(IT 모바일)부문 사장이 26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기자들과 만나 갤럭시S5 조기 출시설과 관련,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갤럭시 시리즈의 시장 여파를 생각한다면 통신사 입장에선 출시 시기에 따라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기 출시가 이뤄지면 SK텔레콤으로서는 웃을 수 있지만 예정대로 다음달 11일 출시된다면 경쟁사보다 한 달여 뒤에나 갤럭시S5를 통한 가입자 마케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가입자 대거 이탈 사태가 우려된다.

반면 다음달 5일부터 단독 영업에 들어가는 LG유플러스의 경우 삼성전자가 예정대로 갤럭시S5를 출시해야 시장 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통사 최초 갤럭시S5 출시'라는 타이틀을 달 수 있기 때문이다.

KT 역시 다음달 27일을 기해 완전히 영업정지가 끝나기 때문에 이날부터 갤럭시S5를 통한 본격적인 가입자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경쟁 제조사는 삼성전자가 갤럭시S5의 출고가를 80만원대로 책정한 데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5의 출고가를 86만8000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기존 갤럭시S4(89만9000원), 갤럭시S4 LTE-A(95만4800원)보다 낮은 가격이다.

이에 따라 5월 신제품인 '베가 아이언2'를 준비하고 있는 팬택 역시 출고가에 대한 고민에 들어갔다. 비슷한 스펙의 제품이라면 결국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해야 하는 팬택은 베가 아이언2를 결국 80만원대나 이보다 낮은 가격대로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 역시 최근 출시한 'LG G프로2'의 가격이 조정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철훈 LG전자 MC마케팅커뮤니케이션담당 상무는 "갤럭시S5 출시 이후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G프로2에 대한 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코스피 하루만에 가뿐히 반등 26일 코스피가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하루 만에 반등하며 23.06포인트(1.19%) 오른 1964.31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4.4원 내린 1075.0원에 마감했다. /뉴시스

미분양 6개월째 감소… 2006년 이후 최저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이 2006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5만2391가구로 전달(5만8576가구)보다 6185가구가 줄면서 6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분양 시장 회복으로 신규 미분양 주택 증가 속도에 비해 기존 미분양 주택 감소 속도가 빠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월 신규 미분양 주택은 1월 3229가구에서 크게 줄어든 460가구로 집계됐고, 기존 미분양 감소분은 1월 5744가구에서 6645가구로 증가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생보 수술비' 최대 5배로

현실 미반영·기준 모호 표준분류표 도입해 개선

생명보험사가 보험 가입 후 지급하는 수술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표준분류표가 도입되고 지급 보험금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생보사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적용하고 있는 수술분류표에 대해 지급 기준을 표준화해 통일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수술분류표는 수술의 경도에 따라 1~5종으로 구분되며 일반 질병 및 재해 치료 목적의 수술, 악성신생물 치료 목적의 수술 등으로 나눠져 있다.

금감원은 최근 수술분류표 통일과 관련된 공문을 생보사에 전달하고 오는 4월부터 보험개발원의 표준수술분류표를 기준으로 수술비특약 보험금을 지급토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 생보사들의 경우 새로운 표준분류표를 적용하게 되면 후두, 흉부 장기, 복부 장기, 척추, 사지관절 내시경 수술, 체강 또는 내강이 있는 장기 내로 삽입하기 위한 튜브형의 기구인 카테터를 이용한 경피적 수술 등의 등급을 한 단계씩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갑상선암 수술을 4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새로운 표준분류표에 따르면 이를 5종으로 변경해야 한다.

표준수술분류표는 이번에 백혈병 등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수술은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에 준해 5종 수술로 인정한다는 내용도 신설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술분류표가 표준화되면 수술비특약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등급이 한 단계만 올라가도 지급되는 보험금이 2~5배나 늘어난다"고 말했다.

특히 갑상선암 수술은 발병률이 높아 5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표준수술분류표를 따르기 위해선 보장 축소나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한편 금감원은 표준수술분류표에 최신 의료기술이 늘어남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 기법도 수술비특약에서 보장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정원기자 pjw89@



황토제화
Hand made Shoes
특허받은 기능성 소가죽 신사화!
기능성 신사화 인솔 특허! (특허 제 28456 호)
품질과 품격으로 인정받는! 정품 황토제화 브랜드를 꼭 확인하세요!
▪ 천연소가죽 사용
▪ 황토 첨가로 발냄새 억제
▪ 세련된 디자인, 강한내구성
▪ 전제품 – 수작업 / 수제화
"특허기술이 접목된 소가죽 신사화의 혁명"
발이 편한 황토제화 수제화를 선택하세요!
SA = 1켤레 : 34,800원 / 2켤레 : 59,800원
V = 1켤레 : 39,800원 / 2켤레 : 69,800원
V + SA = 2켤레 : 64,800원 (신용카드 할부가능)
황토제화 기능성 소가죽 신사화는 부드러운 천연 소가죽소재로 만들어 기존의 신사화보다 훨씬 가볍고 발이 편하고 황토를 첨가하여 악취발생을 억제시켜 더욱 위생적입니다. 또한 인체공학적 내부설계로 보행시 신발 내부의 불편함을 해소 하였고 밑창과 뒷굽은 접지력을 증가시켜 발목에서 무릎으로 전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역활을 하여 기존의 신사화에서는 볼 수 없는 완벽한 착화감과 외형을 갖춘 영국형 정통 소가죽 수제화입니다.
키높이 신사화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7cm 더 커보이며 가볍고 발이 편합니다.
7cm UP
소가죽 키높이 신사화
모델명 : V - 1
색상 : 검정 (소가죽)
사이즈 : 245~275mm
할인가 : 39,800원
V - 2 키높이 신사화
색상 : 검정 (소가죽) 사이즈 : 245~275mm 할인가 : 39,800원
V - 3 키높이 신사화
색상 : 검정 (소가죽) 사이즈 : 245~275mm 할인가 : 39,800원
V - 5 키높이 신사화
색상 : 검정 (소가죽) 사이즈 : 245~275mm 할인가 : 39,800원
V - 15 아도방 키높이 신사화
색상 : 검정(소가죽) 사이즈 : 245~275mm 할인가 : 39,800원
V - 16 아도방 키높이 신사화
색상 : 브라운(소가죽) 사이즈 : 245~275mm 할인가 : 39,800원
V - 9 아도방 신사화
색상 : 검정 (소가죽) 사이즈 : 245~275mm 할인가 : 39,800원
V - 21 아도방 신사화
색상 : 검정 (소가죽) 사이즈 : 245~275mm 할인가 : 39,800원
V - 22 아도방 신사화
색상 : 브라운(소가죽) 사이즈 : 245~275mm 할인가 : 39,800원
V - 25 아도방 신사화
색상 : 검정 (소가죽) 사이즈 : 245~275mm 할인가 : 39,800원
V - 11 4계절용 정장 하프부츠
색상 : 검정 (소가죽) 사이즈 : 245~275mm 할인가 : 39,800원
SA - 5 신고 벗기 편한 지퍼형 케주얼 신사화
색상 : 다크 브라운 (소가죽) 사이즈 : 245~275mm 할인가 : 34,800원
SA - 8 정장용 신사화
색상 : 검정 (소가죽) 사이즈 : 245~275mm 할인가 : 34,800원
SA - 9 정장용 신사화
색상 : 검정 (소가죽) 사이즈 : 245~275mm 할인가 : 34,800원
SA-10 정장용 신사화
색상 : 검정 (소가죽) 사이즈 : 245~275mm 할인가 : 34,800원
SA-11 정장용 신사화
색상 : 검정 (소가죽) 사이즈 : 245~275mm 할인가 : 34,800원
SA-14 케주얼 신사화
색상 : 검정 (소가죽) 사이즈 : 245~275mm 할인가 : 34,800원
SA-15 케주얼 신사화
색상 : 검정 (소가죽) 사이즈 : 245~275mm 할인가 : 34,800원
SA-16 케주얼 신사화
색상 : 검정(소가죽) 사이즈 : 245~275mm 할인가 : 34,800원
SA-17 케주얼 신사화
색상 : 브라운(소가죽) 사이즈 : 245~275mm 할인가 : 34,800원
SA-18 케주얼 신사화
색상 : 검정 (소가죽) 사이즈 : 245~275mm 할인가 : 34,800원
아직도 운동화 따로~ 등산화 따로 신으시나요? 이젠 하나로 해결하세요!
■ 등산, 낚시, 산악트래킹, 각종 레져활동, 아웃도어 슈즈
엠피스포츠 최고급형 (초경량 225g) 전천후 트래킹화
가볍고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일상화에서 전천후 스포츠화까지..
59,800원 → 1켤레 29,800원
2켤레 : 54,800원 (택배비 2,500원 소비자부담)
모델명 M-1 (남녀공용)
칼라 : 오렌지(Orange) 사이즈 : 230~280mm 재질 : 고급매쉬원단
모델명 M-2 (남녀공용)
칼라 : 옐로우(Yellow) 사이즈 : 230~280mm 재질 : 고급매쉬원단
모델명 M-5 (남성용)
칼라 : 블루(Blue) 사이즈 : 250~275mm 재질 : 고급매쉬원단
모델명 M-6 (남성용)
칼라 : 그레이(Grey) 사이즈 : 250~275mm 재질 : 고급매쉬원단
모델명 M-8 (남성등산화)
칼라 : 그레이(Grey) 사이즈 : 250~275mm 재질 : 고급매쉬원단
인터넷주문: www.domo365.com
제품구입 문의전화 : 1599-8171
(토요일, 공휴일 주문가능)
입금계좌 : 농협 / 302-0018-6064-11 예금주 김 효 민
(택배비 2,500원 소비자부담)



우리 집도 이렇게 꾸며볼까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4 서울리빙디자인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품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강신도시~김포공항 경전철 첫삽

김포지역 거주민의 꽉 막힌 서울 출퇴근길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포 한강신도시와 김포공항 23.63km 구간을 28분 만에 잇는 '김포골드라인' 김포시 지하 경전철이 이날 기공식을 갖는다. 2017년 10월에 완공돼 1년여간의 시험 운행을 거친 뒤 2018년 11월 완전 개통할 계획이다.

김포경전철이 개통하면 종착역인 김포공항역은 지하철 5·9호선, 인천공항철도 등 4개 노선의 환승이 가능한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거듭나게 된다. 수도권 각지를 잇는 거미줄 교통망이 완성되는 셈이다.

김포시 숙원 사업이었던 김포골드라인의 기공식과 함께 일대 부동산 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때 분양했던 단지마다 모두 실패해 건설사의 무덤으로 불리곤 했지만 최근 들어 미분양도 속속 소진되는 모습이다. 작년 7월 4491가구에 달했던 미분양 아파트는 2월 현재 2611가구까지 감소한 상태다.

이 같은 분위기에 맞춰 그간 김포 분양을 꺼렸던 건설사들도 속속 신규 공급에 나서고 있다. 당장 GS건설이 장기동에서 지난 2012년 상반기 분양을 계획했다 접었던 '한강센트럴자이'를 2년 만에 내놓는다. 전용면적 70~100㎡, 총 4079가구의 미니신도시급 대단지로 이 중 1차분 3481가구를 5월 선보일 예정이다.

같은 달 대우건설은 중소형으로 구성된 '한강신도시 2차 푸르지오'를 공급하고,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은 풍무동에서 '김포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 2차분을 10월 분양할 계획이다.

/박선옥기자 pso9820@

금시장 열고 나니 불법?

자본시장법 '금지금' 언급 없어 법적 보완 필요

금 시장을 양성화할 목표로 개장한 KRX금시장이 금 현물이 금융투자 상품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예상치 못한 법적 난관에 부딪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상에는 KRX금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순도 99.99%)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에 증권사들은 금융 당국에 금 실물을 확실하게 금융투자 상품으로 못 박아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매출액 공개를 꺼리는 실물 사업자들이 KRX금시장 참여를 관망하는 상황도 나타났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중 증권사 9곳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긴급 모임을 열고 금융당국에 금 거래에 대한 법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증권사는 현재 개인투자자들의 금지금 위탁 매매 주문을 받아 KRX금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향후 랩어카운트나 신탁 상품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금지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나 주가연계증권(ELS), 상장지수채권(ETN), 파생결합사채(ELB) 등 투자자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9년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 대상에 금지금 포함 여부가 모호해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어음'과 '예탁원이 필요를 인정하는 것'을 예탁 대상으로 한다. 금 현물이란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증권사들은 금 현물이 후자에 속할 수는 있으나 이를 확실하게 정해야 추후 분쟁이 발생할 시 증권사가 의도하지 않은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거래소 금시장운영팀의 김학겸 차장은 "증권사들의 거래 금지금은 모두 예탁원의 보관 및 인출을 거친다"며 "증권사들이 혼란의 여지를 아예 없애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물 사업자들이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KRX금시장 참여에 주춤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개장 사흘째를 맞은 KRX금시장은 첫날에만 1.34% 상승했고 직후 2거래일은 내리 약세를 기록했다.

개인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참여한 것과 달리, 실물사업자들의 참가는 미미했다. 거래소 회원으로 등록한 회원사는 57곳에 달하지만 개장 첫날 실제 거래한 곳은 증권사 7곳과 실물사업자 3곳에 불과했다.

이날 금지금은 전 거래일보다 0.37% 하락한 4만6060원에 거래를 마쳤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친환경 에너지 만들기' 짜릿한 체험 26일 서울 구로구 다문화 대안학교인 지구촌학교에서 열린 '지멘스그린스쿨'에서 학생들이 지멘스 임직원 및 대학생 서포터스와 함께 친환경 에너지 실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봄나들이 보내드려요" 금융사 경품 경쟁

주요 금융사들이 꽃피는 봄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로 춘심 잡기에 나섰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선 KB국민은행은 오는 5월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꽃보다 펀드' 시즌1, '펀드 가입하고 봄나들이 가자' 행사를 진행한다.행사 기간 동안 인터넷뱅킹 또는 스타뱅킹 등을 통해 이벤트 대상 펀드에 가입한 고객 중 20만원 이상 신규하고 자동이체 1년 이상(월 20만원 이상) 등록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상 펀드로는 새롭게 출시되는 저렴한 보수의 온라인 전용 인덱스펀드 3종과 주요 선진국에 투자되는 펀드 3종, 국내 투자 펀드 3종 등 총 9종의 펀드를 포함시켰다. 이벤트 대상 고객은 별도의 응모 절차 없이 대상 펀드 가입 시 자동으로 응모된다.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는 여행상품권 50만원(1명), 30만원(3명), 10만원(10명), 3만원(200명)을 증정한다.

BS금융그룹 부산은행은 새봄맞이 '스프링 통!통!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는 27일 부산 서면CGV에서 기업카드 이용 회원을 대상으로 한 영화 관람 초청 행사를 진행한다. 은행 측은 이 행사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 지역 내 우수 기업 회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개인카드 회원들을 위해서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봄맞이 고객 응모 이벤트'를 실시한다. 부산은행 홈페이지와 BC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한 고객 중 카드 이용액 30만원 이상 이용 회원을 추첨해 1등에게는 TOP포인트 30만 점(1명), 2등에게는 TOP포인트 20만 점(3명)을 제공한다. 이 밖에 하나SK카드는 '봄맞이 체크카드 이벤트'를 진행한다. 하나SK카드는 다음 달 30일까지 누적 금액으로 300만원 이상 사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다양한 선물을 준비했다.

/김민지기자 minji@

정몽구 회장 “中 상용차 시장 접수하라”

쓰촨현대 등 생산거점 누비며 “새로운 1000만대 시대 준비” 강조



쓰촨현대차 공장.

정몽구 회장이 현대차그룹 중국 누적 판매 1000만 대 돌파를 앞두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정 회장은 26일 현대차 최초 상용차 해외 공장인 쓰촨현대를 방문한데 이어 27일 충칭시와 자동차 사업 협력 방안을 협의한 후, 28일에는 올해 초 완공된 옌청 둥펑위에다기아 3공장을 찾는 등 3일간 서부 쓰촨성에서 동부 장쑤성까지 중국 동서를 횡단하는 강행군을 펼친다.

올해부터 가동을 시작하는 현대차 상용차공장과 기아차 3공장은 올해는 물론 향후 현대·기아차가 중국 시장에서 선두 메이커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거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현대차의 4공장 건설 유력 지역으로 충칭을 주목하고 있는 것도 중국 중서부 시장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적 포석이다.

정 회장은 “올해는 현대·기아차가 중국에서 1000만 대 판매를 돌파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품질은 물론 상품, 브랜드, 고객 서비스 등 전 부문에서 과감한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1000만 대 시대를 준비하자”고 말했다.

◆올 상반기 쓰촨현대 완공

현대차그룹은 세계 최대 상용차 시장인 중국에 생산 거점을 마련하고 상용차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

정 회장은 26일 중국 쓰촨성 쯔양시에 위치한 쓰촨현대 상용차 공장 건설 현장을 찾아 공장 건설 진척 상황과 판매 전략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중국 중서부 대개발에 따라 상용차 시장이 고속 성장하고 있다”며 “공장 건설에 만전을 기해 고품질의 상용차를 생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대·기아차가 경쟁사들에 비해 중국 진출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용 시장에서 3위권의 자동차업체로 성장했다”며 “상용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메이커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공장을 완공하고 중국 전략 고급 트럭 ‘트라고 엑시언트’를 양산한다. 신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면 쓰촨현대는 기존 난쥔기차의 생산시설을 최신식으로 리모델링한 1만 대 규모의 청두 버스공장과 함께 트럭 15만 대, 버스 1만 대 등 총 16만 대 규모의 상용차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한 현대차는 난쥔기차가 생산해온 기존 차종은 품질과 성능을 향상시켜 저가형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현대차가 중국 시장에 맞게 개발한 상용차들을 신규 투입하는 등 올해 5만여 대 판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판매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충칭시와 자동차 산업 협력 추진

현대차그룹은 27일 중국 충칭시에 위치한 위저우 호텔에서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충칭시 쑨정차이 서기를 비롯해 현대차그룹 및 충칭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자동차 사업 협력 방안을 추진하는 전략합작기본협의서 체결식을 가진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26일 서울 대치동 렉서스 전시장에서 모델이 렉서스 하이브리드 컴팩트 해치백 ‘더 뉴 CT200h’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렉서스 하이브리드’ 국내 쏟아진다

토요타 ‘뉴 CT200h’ 출시 시작 라인업 강화 나서

렉서스가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강화하면서 신모델 투입을 강화한다.

한국토요타는 26일 렉서스 강남 전시장에서 열린 뉴 CT200h 미디어 론칭 행사장에서 ‘렉서스 비전 2020(LEXUS Vision 2020)’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브랜드’가 되기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

한국토요타자동차 신임 요시다 아키히사 신임 사장은 “렉서스는 지속적인 차세대 렉서스의 도입 및 ES300h로 대표되는 렉서스 하이브리드의 호평 등으로 한국 시장에서의 재도약의 발판을 조금씩 마련해가고 있다”며 향후 3년간 ▲2014년 ‘질적 성장’ ▲2015년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 ▲2016년 ‘새로운 도약’을 통해 명확한 렉서스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2014년 현재 6만 대인 누적 판매 대수를 2020년까지 10만 대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렉서스는 진보된 하이브리드 기술에 더욱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올해 뉴 CT200h를 시작으로 한국 시장에서의 렉서스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강화하며 4월부터는 ‘렉서스 하이브리드 제로(Lexus Hybrid Zero)’ 마케팅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하이브리드와 퍼포먼스를 테마로 한 경쟁력을 갖춘 렉서스 신모델을 지속적으로 한국 시장에 투입, 확고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요시다 사장은 렉서스 하이브리드의 우수성을 보다 젊은 고객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뉴 CT200h를 4월에, 렉서스 최초로 선보이는 콤팩트 SUV인 NX 하이브리드를 10월 중 출시해 소형 해치백 모델부터 중·대형 세단, 중·대형 SUV에 이르는 총 6종의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디트로이트 모터쇼와 제네바 모터쇼에서 각각 선보인 RC F와 RC350 F 스포츠를 11월 중 출시한다. 기존 4종의 F 스포츠 라인업에 추가, 총 6종의 퍼포먼스 라인업을 구축함으로써 렉서스의 다양한 매력을 국내 고객에게 선보이겠다는 전략이다. /임의택기자 ferrari5@

‘채동욱’ 연루된 삼성 “우린 피해자”

채모군 모자에 송금한 이 계열 삼성물산 근무 이력

삼성그룹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삼성 계열사가 연루된 데 대해 “삼성도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이인용 삼성그룹 커뮤니케이션팀장 사장은 26일 수요 사장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와 오늘 채 전 총장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우리 회사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불미스러운 일에 회사 이름이 거론된 데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분명한 사실은 삼성도 피해자라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앞서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의심받는 채모군 모자에게 송금된 돈이 삼성 계열사 자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씨는 삼성물산에서 근무하다 2000년 4월 차장으로 퇴직했으며, 이후 삼성물산이 의료용품 구매 대행 회사인 케어캠프를 자회사로 만들면서 다시 채용돼 임원으로 일하다 2011년 퇴직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라이나 실버암보험 80세도 가입



라이나생명은 고령자 대상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의 가입 연령을 80세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암 발생률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암 발생자는 인구 10만 명당 남자 412명, 여자 397.7명으로 2009년 대비 4% 증가했다. 특히 75~79세의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약 1805명으로 전체 평균인 405명과 비교했을 때 4배가 넘는 높은 수치다.

이렇게 고령자에게 암보험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을 반영해서 가입 나이에 제한 또는 인수 기준을 완화해 실버암보험 상품을 다시 출시했다. 라이나생명은 2012년 7월 국내 최초로 고령자 전용 암보험 무배당 실버암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61세에서 80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고안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으로,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일반 암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원을 보장받는다.

이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라이나생명 홈페이지(www.lina.co.kr) 또는 고객서비스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80)951-8585 /박정원기자 pjw89@

삼성전자 나홀로 24조 투자

작년 재계 투자규모 삼성·SK·KT·CJ 늘고 포스코·신세계·LG 줄고

지난해 10대 그룹 중 포스코·LG·신세계 등의 투자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삼성과 SK·KT·CJ 등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를 30대 그룹으로 넓힐 경우 에쓰오일·현대·현대백화점 등은 투자를 늘린 반면 두산·LS·동부·대림·대우건설 등은 투자가 크게 축소됐다.

특히 30대 그룹의 전체 투자 규모에서 삼성·현대차·SK 등 '빅 3'의 투자 비중이 54%에 달했다.

26일 기업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그룹 상장사 171개사(금융사 제외)의 유·무형 자산 투자를 조사한 결과 전체 95조8000억원으로 2012년 97조7000억원보다 1.9% 줄었다.

지난해 투자액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그룹으로 전년 27조원보다 6% 증가한 28조7000억원에 이른다. 2위는 SK그룹으로 전년 11조원보다 11.3% 증가한 12조2700억원을 투자했다.

반면 삼성과 SK를 제외한 30대 그룹의 투자액은 54조8300억원으로 전년 59조6000억원보다 8% 줄었다.

삼성은 지난해 3분기까지만 해도 투자액이 전년 대비 15% 감소한 19조원에 그쳤지만, 4분기 투자 규모를 크게 확대해 전년 수준을 넘어섰다. 삼성전자의 경상연구개발비(14조8000억원)를 추가하고 나머지 계열사의 연구·개발(R&D) 비용을 더하면 전체 투자액은 지난해 목표치(49조원)를 무난히 달성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SK는 SK이노베이션과 SK텔레콤이 투자액을 전년보다 각각 71%, 15.2% 늘린 1조2000억원, 5400억원이었다.

투자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에쓰오일로, 전년 1900억원 대비 144% 증가한 4600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현대백화점(41.2%), 현대(24.8%), KT(20.6%), SK(11.3%) 등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CJ(9.3%), 삼성, 금호아시아나(5.1%), 영풍(4.2%), 현대중공업(2.8%) 등은 30대 그룹 평균보다 투자액 증가율이 높았고, 롯데는 2조7970억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동부(-27.8%), 두산(-24%), 동국제강(-23.7%), 한화(-23.2%), 포스코(-21.4%), 대우조선해양(-21.2%), LG(-20.6%), 대림(-17.4%), LS(-16.2%) 순으로 감소율이 컸다.

기업별로 삼성전자의 투자액이 24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포스코 7조4400억원, KT 5조5300억원, 현대자동차 4조1000억원, SK텔레콤 4조900억원, SK하이닉스 3조8500억원, SK이노베이션 2조9100억원 순이었다.

/김태균기자 ksgit@metroseoul.co.kr



살로몬, 스피드크로스3 시리즈 출시 26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모델들이 스포츠 아웃도어 살로몬의 신제품 '스피드크로스3' 시리즈 출시를 기념해 무중력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살로몬 제공

'피해액의 10배'가 1000원?

SKT 보상금에 불만 폭주

SK텔레콤 통신 장애 보상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26일 각종 포털사이트 상위 검색어로 'SKT 통신 장애 보상'이 오른 가운데 보상액 산정 기준을 두고 의문이 증폭됐다. SKT 측은 보상액 산정은 객관적으로 진행됐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SKT는 25일 오후 6시부터 공식 홈페이지(cs.sktelecom.com)를 통해 'SKT 서비스 장애 요금 감액 및 보상 대상자 조회'를 서비스하고 있다. 이용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회선에 대한 보상 금액이 산출된다.

20일 저녁 발생한 통신 장애 직접 피해자는 피해 규모의 10배, SKT 모든 가입자는 간접 피해 명목으로 하루치 요금을 다음달 청구서에서 감면받는다.

SKT 보상금 조회 결과 대다수 이용자가 1000원대 안팎의 보상을 받는 와중에 같은 요금제 가입자끼리 보상액 격차가 크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SKT는 통신 장애가 벌어진 시간 동안 직접적 피해를 입은 고객 560만여 명에 대한 보상액 산정은 시스템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기준은 공정했다고 해명했다. 전체 가입자에 대한 간접 피해 보상액은 기본료 또는 월정액의 1일분 요금을 일률적으로 감액 조치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SKT 서비스 장애 담당자는 "가입자확인모듈 고장으로 인한 고객 피해 유형 분류 및 보상액 산정은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보상액이 기대보다 적은 것에 대해 송구하다. 여론이 안 좋은 부분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3월 신규 가입 고객의 보상 금액은 27일 오전 10시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장윤희기자 unique@



생애 첫 DSLR 추억 'EOS Hi'로 찰칵!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이 26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누구나 손쉽게 고화질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입문용 DSLR 카메라 'EOS Hi'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졸자 15% '백수 4년차'

대졸자 중 15%가량은 졸업한 지 4년이 지난 시점에도 미취업 상태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데도 대졸 취업자 중 30%가량은 취업 후 2년 새 직장을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한국고용정보원이 2010년과 2012년 전문대 이상 대졸자의 취업 현황을 표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대졸자 46만 명 중 14.6%가량이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 상태인 경우는 4.2%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가 10.4%였다.

이번 조사는 2008년 9월과 2009년 2월 전문대 이상 대학을 졸업한 48만 명 중 1만810명을 2010년 1차 조사하고 2년 후인 2012년 1만4434명을 2차로 추적 조사해 분석한 결과다. 1차 조사 당시 실업자였던 4만2745명 중 8.9%는 2차 조사에서도 실업자로 남아있었다. 비경제활동 인구로 편입된 경우는 17%였다. 1차 조사 때 비경제활동인구였던 7만7153명 중 6.7%는 2차 조사 때 실업자로, 26.1%는 비경제활동 상태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국명기자

대졸 초봉, 고졸보다 333만원 많다

올해 기준 대기업선 741만원으로 격차 심화

올해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이 고졸보다 평균 333만원의 연봉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729개사를 대상으로 2014년 신입 초봉을 조사한 결과, 대졸은 평균 2363만원으로 집계됐다. 초대졸은 2182만원, 고졸은 2030만원으로 대졸보다 각각 평균 181만원, 333만원씩 적었다.

대기업의 경우 대졸 초봉은 평균 3089만원, 고졸은 2348만원으로 학력에 따른 격차가 741만원에 달했다. 뒤이어 중견기업(624만원), 중소기업(286만원) 순이었다.

직군에 따른 연봉 차이도 컸다.

기업 10곳 중 3곳(31.3%)이 직군별로 차이를 두고 있었으며 기본급 기준으로 신입사원 초봉이 가장 높은 직군은 '연구·개발'(23.7%)이었다.

직군에 따라 초봉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 여부'(57%·복수 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이외에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계 여부'(22.4%), '회사의 핵심 사업과 연계 여부'(17.1%), '핵심 인재 여부'(11%), '인재 채용 및 육성의 용이성'(7%), '동종업계 수준'(7%) 등을 고려하고 있었다.

한편 전체 기업의 43.2%는 올해 신입사원 초봉을 전년보다 평균 6% 인상했다. 그 이유로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 인상하고 있어서'(29.8%·복수 응답), '전체 연봉이 인상돼서'(28.3%), '인재 발굴 및 확보를 위해서'(21.9%), '경쟁사와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13%) 등을 들었다.

/이국명기자 kmlee@

무인기로 감기약 배달 시대 곧 열린다

글로벌 이코노미

샌프란시스코 미션 지구서 의료용 마리화나 취급 안해 소음·정보 유출 우려 지적도

머지않아 미국에서 감기약 등 의약품을 배달해주는 '약국 드론(무인항공기)'(사진)이 나올 전망이다. 귀찮은 발걸음을 줄일 수 있다며 '날아다니는 배달부'의 등장을 반기는 이들도 있지만 '날아다니는 해커'가 등장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 온라인 매체 허핑턴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한 업체가 샌프란시스코 미션 지구에서 드론을 이용한 의약품 배달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체 측은 "이 지역은 고층 건물이 많지 않아 드론을 이용한 배달 사업을 하기에 좋다"면서 "물건값에 배달료로 1달러만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체 대표 조슈아 지어링은 "드론이 물건을 싣고 집 앞에 도착하면 고객의 전화벨이 울릴 것"이라면서 "전화기를 들고 나가서 배달된 물건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면 상공에서 드론이 물건을 내려놓은 뒤 돌아가게 된다"고 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다.

약국 드론은 독감 등에 걸린 사람들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집에서 나와 약국으로 물건을 사러 오기가 힘들다는 점에 착안, 개발하게 됐다고 업체 측은 밝혔다. 이어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주로 취급할 예정이지만 의료용 마리화나는 배달하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아직까지 시내 약국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조만간 드론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당수 시민들은 상업용 드론의 편리함을 이유로 새로운 배달 시스템을 반기지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다. 드론이 상공을 누비게 되면 각종 소음 등으로 골치가 아플 수 있기 때문이다. 지어링은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드론 배달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면서 "학교와 공원 등을 드론의 운송 노선에서 제외시킨 것도 이런 이유"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상업용 드론이 자유롭게 상공을 비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한 보안 관계자는 "드론을 이용해 스마트폰에 있는 개인정보를 쉽게 유출할 수 있다"며 "드론이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마냥 반길수만은 없다"고 미 경제매체 CNN머니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이 와이파이(무선인터넷)에 접속돼 있을 경우 해커들은 드론에 설치한 프로그램의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의 모든 정보를 빼돌릴 수 있다"면서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사용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드론은 공중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드론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어 마음대로 정보를 유출해도 지상에서 이를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더 울프…' 블루레이 DVD 잘 될겁니다" 영화 '더 울프 오브 월 스트리트'의 블루레이 DVD 출시를 기념,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남성들이 양복 차림에 늑대 가면을 쓰고 돈뭉치를 들어 보이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AP 연합뉴스

대만 HTC의 도발

"갤S5 사면 후회" 자극적 광고

"삼성전자의 갤럭시S5를 사면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

대만 스마트폰 업체 HTC가 이 같은 자극적인 광고를 선보이며 신제품을 공개해 화제다.

HTC는 2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에서 동시 신제품 설명회를 하고 코드명 'M8' 스마트폰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기존 'HTC 원' 시리즈보다 화면 크기를 0.3인치 키운 5인치 1080픽셀 디스플레이를 채택했다. 가격은 2만1900대만달러(약 77만2000원)다. /이국명기자 kmlee@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美 고용률 1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인근 리버사이드시가 지난해 미국 내 대도시 중 가장 높은 고용률 증가를 보였다.

25일(현지시간) 휴스턴 비즈니스 저널에 따르면 최근 애리조나주립대 W.P 케리 경영대학원의 맥 피터스 교수는 2012, 2013년 고용률이 높게 상승한 미국 내 10개 도시, 10개 주를 정리해 발표했다.

피터스 교수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이 사는 대도시를 대상으로 농업을 제외한 여러 직군의 고용률을 살폈다. 조사 결과 건설, 도매업 등에서 고용률 1위를 달린 리버사이드시의 전체 고용률은 전년보다 4%포인트 증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같은 주의 샌프란시스코(3.9%포인트 상승)와 콜로라도주의 덴버(3.6%포인트), 텍사스주의 휴스턴(3.5%포인트) 순이었다.

미국에서 가장 경기가 좋은 지역으로 평가되는 텍사스주의 휴스턴과 댈러스는 지난해 1위와 4위에서 올해 각각 4위, 8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사우스 다코타, 버지니아, 메인, 뉴멕시코, 아칸소 등은 고용 성장률이 낮은 10개 주로 확인됐다.

/조선미기자

페북 가상현실 사업 '가속도'

오큘러스 VR 인수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브랜드 페이스북이 가상현실을 품에 안았다.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HMD)와 같은 가상현실(VR) 기기를 만드는 오큘러스 VR를 23억 달러(약 2조5000억원)에 인수한다.

이로써 페이스북은 최근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을 20조원에 사들인 데 이어 오큘러스마저 손에 넣으면서 가장 완벽한 모바일 플랫폼에 접근한 기업으로 떠올랐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26일(한국시간) 페이스북 게시물에 오큘러스 인수 사실을 밝히고 현금 4억달러, 페이스북 주식 2310만주(시가 16억 달러) 등의 거래 조건을 공개했다.

이번 빅딜은 올 2분기 내 마무리되며 오큘러스가 페이스북에 인수된 후에도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저커버그는 강조했다.

오큘러스 VR는 팔머 러키가 2012년 창립한 신생 기업으로 HMD인 '오큘러스 리프트'를 개발 중이다.

HMD는 안경이나 헬멧처럼 머리에 쓰는 일종의 디스플레이며 3차원 게임 등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다. 일반적인 스크린과 달리 바로 눈앞에서 가상현실이 펼쳐지는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오큘러스 리프트의 개발자용 시제품은 지난해 3월에 나왔으며 소비자용 제품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인수하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열린다. 페이스북에 가상현실 플랫폼을 도입할 수 있고 HMD에 페이스북을 얹히는 방법도 가능하다.

당장 저커버그는 오큘러스와 페이스북을 활용해 스포츠 중계, 원격 강의와 진료 등을 예로 들었다.

한편 페이스북이 모바일 하드웨어에도 손을 뻗침에 따라 구글과도 직접적인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구글이 야심차게 준비 중인 구글글라스 역시 넓은 의미에서 보면 HMD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기기에서 페이스북이나 구글플러스를 구동할 경우 현재로서는 가입자 수나 트래픽 등에서 앞서는 페이스북이 유리하다.

저커버그는 "현재 (메이저) 플랫폼은 모바일인데 우리는 미래의 플랫폼도 준비했다. 오큘러스는 차원이 다른 '연결'을 통해 일하고 놀고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zen@

아직도 '윈도XP' 쓰는 우리 회사 어떡해

'MS 다음달 8일 기술지원 종료' 이렇게 대응을

"해킹 대란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마이크로소프트(MS)가 운영체제인 '윈도XP'에 대한 모든 공식적인 기술 지원을 종료하는 다음달 8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같은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유튜브에서 'how to hack atm'이란 검색어를 입력하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해킹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동영상이 5만 건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안은 공포로 변할 조짐이다. IT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윈도XP 종료에 따른 상황별 대응법을 알아본다.

◆가장 완벽한 보안은 '인터넷 끊기'

MS가 윈도XP에 대한 지원을 종료한다고 바로 윈도XP PC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원한다면 계속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악성코드나 해킹 등 PC에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감수해야 한다.

MS는 윈도XP를 계속 사용하는 소비자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핵심'이라는 보안 프로그램을 무료 배포하고 있다. 인터넷진흥원도 '윈도XP 전용 백신'을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에서 무료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것도 완벽하진 않다. 전문가들은 윈도XP가 탑재된 PC를 계속 사용하려면 아예 인터넷 연결까지 끊는 것이 안전하다고 충고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족으로 상위 운영체제(OS)를 구매하지 못한 윈도XP PC 360여 대를 폐기하지 않고 인터넷 선을 뽑은 채 쓰기로 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USB나 외장하드를 연결할 때 반드시 백신으로 검사해야 보안 위협을 줄일 수 있다.



◆리눅스 등 오픈 소스 OS 갈아타기도 대안

리눅스 '우분투' 등 오픈소스 OS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다. 무료인 데다 저사양 PC에서도 잘 돌아간다. 고사양 게임이나 고화질 동영상보다는 웹서핑·문서 작업을 자주 이용한다면 윈도XP가 설치된 PC에 어울리는 다양한 오픈소스 OS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

특히 매번 업데이트를 통해 보안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MS의 윈도와는 달리 오픈소스 OS는 바이러스 등 보안 위협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터넷 뱅킹, 인터넷 민원, 연말정산 등을 아직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상위 버전 업그레이드 도우미 활용

이번 기회에 MS의 '윈도7'이나 '윈도8.1' 같은 운영체제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각 운영체제별로 개인용 설치 CD를 구매하거나 해당 운영체제가 포함된 브랜드 PC를 새로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 가격은 윈도8의 경우 12만~15만원 정도다.

상위 버전 전환을 결심했다면 MS가 무료로 제공하는 'PC무버(Mover)'를 이용해볼 만하다. 문서, 사진, 동영상 등을 손쉽게 새 OS로 옮길 수 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삼성전자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마련한 '커브드 UHDTV' 간송문화전 전시. /삼성전자 제공

도민준처럼 시공초월한 '간송미술관'



IT도 인문학이다

/박성훈기자 zen@

업종을 막론하고 기업은 '온고지신'의 미덕을 체화해야 한다.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 가운데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는 구절이다.

학창 시절 '빽빽이'(암기해야 할 단어나 구절을 빈 종이 가득 채우는 것)를 할 때 정말 자주 적었던 사자성어이기도 하다. 옛것이나 새것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삼성전자의 최근 행보를 보면 공자가 미소를 지을 것 같다. 먼저 최근 문을 연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고 있는 '간송문화전'을 보자.

삼성은 이곳에 '커브드 UHD TV 영상존'을 마련하고 간송미술관의 주요 작품을 초고해상도(UHD) 화질로 선보이고 있다.

간송미술관은 한국 전통 미술품 수집가 간송 전형필이 일제시대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수집한 품목들을 보관한 곳이다. 이 미술관에는 훈민정음(국보 70호)을 비롯해 고려의 청자상감운학문매병(국보 68호), 미인도가 포함된 신윤복의 혜원전신첩(국보 135호) 등 국보급 문화재만 10여 점이 넘게 보관돼 있다.

그런데 간송미술관은 1년에 봄·가을에 두 번, 그것도 짧게 일반에 문을 연다.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곳인데 삼성의 첨단 TV를 매개로 시민들이 실제 미술관에서 보듯이 사실적인 작품을 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은 UHD TV에서 본 간송미술관의 국보는 물론 간송의 위대함을 재발견하고 있다.

르네상스의 젖줄이 된 메디치 가문, 미국 현대 미술의 초석을 다진 록펠러만큼이나 우리에게도 위대한 선구자가 있었다는 팩트를 확인하면서다. 삼성이 옛것에서 그럴듯한 콘텐츠를 재생산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보다 앞서 삼성은 김수현·전지현이 출연하는 '별에서 온 그대'라는 지상파 드라마를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했다. 자사의 노트북 '아티브 북9 라이트'를 천송이(전지현)가 사용하도록 해 '천송이 노트북'이라는 유행어를 탄생시켰다.

드라마의 스토리, 출연 배우 등을 면밀히 분석해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삼성이 전략적으로 간접광고(PPL)를 진행한 덕에 천송희 노트북은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새것에서 그럴듯한 파급 효과를 창출한 셈이다.

삼성전자는 현명하다. 공자 왈 맹자 왈 백날 해도 소용없고 공자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 속에서 달리면서 찍는다

소니 하이엔드 액션캠 신제품 1350만 화소 풀HD 촬영 가능

스카이다이빙, 윈드서핑, 사이클 등 익스트림 스포츠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손쉽게 담는 것이 가능해졌다.

소니코리아는 26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상황에서도 화질 저하, 고장 걱정 없이 풀HD 영상을 찍을 수 있는 하이엔드 액션캠 'HDR-AS100V'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1350만 화소의 엑스모어(Exmor) R 시모스(CMOS) 센서와 전작 대비 30% 이상 해상력이 강화된 170도의 초광각 자이스 테사 렌즈를 탑재해 노이즈가 적은 깨끗한 영상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손떨림 보정 기능인 '뉴 스테디샷 액티브 모드'를 탑재해 바이크, 스노보드 등 흔들림이 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별도의 방수 케이스 없이도 생활 방수와 영하 10도의 방한 기능을 지원하고 방수 케이스(SPK-AS2)를 장착하면 최대 5m 수심까지 수중 촬영을 할 수 있다. 또 먼지와 이물질로부터 카메라를 보호하는 방진 기능, 1.5m의 충격 방지 기능을 제공해 고장 걱정 없이 아웃도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와이파이(Wi-Fi) 및 근거리무선통신(NFC)를 탑재해 별도의 복잡한 설정 없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촬영한 영상과 GPS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달 2일 라이브 뷰 리모트를 기본 제공하는 '라이브 뷰 리모트 패키지'로 정식 출시되며 가격은 54만9000원이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아프리카TV 야구 생중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 아프리카TV는 29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7개월간의 대장전에 돌입하는 '2014 프로야구'를 모바일과 PC에서 생중계한다.

전 경기를 HD 고화질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각 구단을 대표하는 방송진행자(BJ)들이 펼치는 편파 중계, 스먹방(스포츠 중계와 '먹는 방송'의 결합) 등 BJ들이 자유롭게 풀어내는 창작 중계 방송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한다.

또 이용자 편의를 위한 경기 일정 및 결과 정보와 다시 보기, 하이라이트, 화제의 시구 등 다양한 동영상 서비스(VOD)를 제공하며, 개막일인 29일과 이튿날인 30일 공식 중계 방송을 시청한 이용자들에게는 추첨으로 치킨 기프티콘을 선물한다.

헉! 와퍼세트 '악마의 열량'

5대 패스트푸드 비교 조사
버거킹 대표메뉴 1122㎉
성인 하루 필요량의 절반
KFC 징거버거 나트륨 최고

패스트푸드 대표 메뉴들 가운데 버거킹 와퍼세트가 소비자들을 '뚱보'로 만드는 '왕칼로리 세트'로 다이어트를 염려한다면 섭취하지 말아야 할 1순위 제품으로 낙인 찍혔다.

공공기관 조사에서 버거킹의 대표메뉴인 와퍼세트(763g) 1세트만 먹어도 하루 성인 권장 열량의 절반을 섭취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이 매출 규모 상위 5개 패스트푸드 업체의 대표 및 최다 매출 메뉴 7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버거킹의 대표 상품인 와퍼 세트의 열량은 무려 1122㎉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성인 남성의 하루 영양 섭취 기준(2200~2600㎉)의 43.2~51.0%에 해당하는 열량이다.

특히 버거킹의 이 세트 메뉴 열량은 비슷한 구성과 무게의 롯데리아 랏츠버거세트(730g) 935㎉보다 187㎉가 높았다.

별도 조사한 나트륨 함량은 KFC의 징거버거 세트(678g)가 1447.2㎎으로 가장 높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성인 나트륨 일일 충분 섭취량(1400~1500㎎)의 96.5~103.4%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어 맥도날드의 빅맥 세트(637g)가 1212㎎,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세트(652g) 198㎎, 롯데리아의 랏츠버거 세트(730g)가 173㎎의 나트륨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서비스 종합 만족도 조사에서는 맥도날드가 5점 만점에 3.60점을 받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맥도날드는 서비스 체험(이용 과정의 만족도)·상품 품질·이용 편의성·시설과 환경·가격·서비스 운영 관리(직원 서비스) 등 6개 부문 중 이용 편의성과 서비스 체험, 서비스 운영·관리 등 3개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가장 낮은 업체는 파파이스로 전체 평균 3.54점보다 낮은 3.45점을 받는 데 그쳤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버거류 세트 메뉴가 한 끼 식사로는 상당한 열량과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패스트푸드점 매장 내에 부착된 영양 성분 함량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수입맥주 비켜! 오비맥주 에일스톤 출시 오비맥주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1일부터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영국 정통 스타일의 프리미엄 에일맥주인 에일스톤(ALESTON) '브라운 에일'과 '블랙 에일' 2종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그동안 수입 맥주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에일맥주 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비맥주 제공

김우빈·추사랑…TV광고 핫해졌네

제품 모델 교체 바람

새봄을 맞아 유통업계의 신규 TV CF가 잇따라 공개돼 눈길을 끄는 가운데 광고의 꽃인 '모델'도 새롭게 전격 교체돼 주목을 받고 있다.

ABC마트는 여성화 자체브랜드(PB) '누오보(NUOVO)'의 2014년 봄 시즌 모델로 tvN '로맨스가 필요해 시즌3'에서 주목받은 패셔니스타 윤승아를 선정했다. 윤승아는 해당 CF에서 귀여운 말괄량이 삐삐로 변신해 화제를 몰고 왔으며 광고 공개 이후 전국 ABC마트 매장에서 '윤승아 신발' 등으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귀띔했다.

화승 아웃도어 브랜드 머렐은 대세 김우빈과 이나영을 새 얼굴로 발탁했다. 김우빈은 모델 출신으로 훤칠한 키와 시크한 매력을 가지고 있고 신인답지 않은 출중한 연기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이나영은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넘나들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계층에서 사랑하는 톱배우다.

더바디샵은 배우 현빈을 모델로 캐스팅한 새 광고를 4월 1일부터 방송한다. 현빈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건강한 남성미와 섬세한 감성의 매력을 동시에 갖춘 배우로 더바디샵이 추구하는 자연스럽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모델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오뚜기는 '참깨라면'의 모델로 최근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추성훈·사랑 부녀를 발탁했다. 추사랑은 사랑스러운 애교와 귀여운 외모, 먹방 등의 이미지로 '추블리'라는 애칭까지 얻고 있는 요즘 가장 사랑받는 유아 스타다. 오뚜기 측이 추성훈 부녀를 모델로 선정한 것은 '참깨라면'의 주 타깃층을 10대 청소년층에서 30~40대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뽀로로야, 과자는 우리 거!

라바·코코몽·캐니멀 등
제과 패키지 속속 등장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우상이자 뽀통령 '뽀로로'의 아성에 도전하는 캐릭터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캐릭터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라바와 코코몽, 캐니멀 등의 캐릭터들이 인기 열풍에 가세하면서 캐릭터 시장에 새로운 지각변동이 불고 있다.

해태제과는 최근 인기몰이 중인 라바(Larva)를 전면에 내세웠다. 라바는 2011년 첫 편을 선보인 이후 제2의 뽀통령으로 불리며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다.

해태제과는 이달 초 씹어 먹는 요구르트 '헤이덴마크'의 어린이용 제품인 '헤이덴마크 키즈'를 출시하면서 라바 캐릭터를 그려 넣었다. 또 패키지에 라바 캐릭터인 옐로우와 레드의 익살스러운 표정을 그려 넣었다.

크라운제과는 어린이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코코몽을 선택했다. 코코몽은 2008년 '냉장고 나라 코코몽'으로 처음 소개된 이후 '헬로 코코몽' '코코몽 2'가 시리즈로 제작될 만큼 유아기 아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다. 크라운제과는 지난해 12월 바나나맛 콘스낵인 콘빠를 출시하면서 제품 패키지에 코코몽을 사용해 제품에 대한 호감도 높이기에 나섰다.



어린이용 과즙음료 '코코몽'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는 웅진식품은 지난해 하반기에 발효홍삼농축액을 더한 음료 '발삼키플러스 코코몽' 2종을 선보였다. 제품에 아이들에게 친숙한 코코몽을 앞세워 또 다른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동원F&B는 최근 인기 토종 캐릭터 '캐니멀'과 제휴를 맺고 새 동원참치 광고 시리즈를 선보였다. 캐니멀은 평소에는 통조림이지만, 사람이 없을 때면 귀여운 동물로 변하는 캐릭터로 2009년 첫선을 보인 뒤 3년 만에 관련 캐릭터 상품만 1000여 가지에 다다를 만큼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정영일기자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앱 시장 달구는 배달 삼국지

최근 새로운 유통 채널로 관심을 받고 있는 배달 앱 서비스 업체 간의 경쟁 구도가 심상치 않다.

26일 배달음식 주문 서비스 요기요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닐슨코리안클릭의 PC와 모바일 통합 방문자 수 기준으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3개 주요 배달 앱 업체의 지난 2월 순방문자 수는 329만1039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1위는 배달의 민족으로 147만6865명으로 나타났으며 요기요 129만255명, 배달통 52만3919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요기요의 경우 3위 업체인 배달통의 방문자 수의 약 2.5배를 기록하며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의 방문자 수를 87% 수준까지 추격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배달앱 3사의 점유율은 배달의 민족이 45%, 요기요 39%, 배달통 16% 수준이다.

요기요의 경우 2012년 6월 업계의 후발 주자로 배달의 민족과 배달통에 비해 2년 이상 뒤늦게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TV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과 영업 활동을 통해서 평균 25% 이상의 월 성장률을 꾸준하게 유지하며 서비스 론칭 1년여 만인 지난해 8월 이미 방문자 수 기준 업계 2위로 올라서는 성과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12월과 1월 각각 전월 대비 68%와 50% 성장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 기록을 달성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수지의 '씨눈 에센스'도 반값

더페이스샵 일주일 세일



자연주의 화장품 더페이스샵은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7일간 '수지의 봄나들이 세일'을 벌인다. 이 기간 더페이스샵 전국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구매 고객에게 품목별로 20~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자외선이 강해지는 봄철 필수 제품인 자외선 차단제 전 품목에 50%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다. 또한 올봄 신제품인 '씨눈 에센스'와 미백 기능성의 '스밈 광채 보습 에센스' '명한 미인도 찬삼송이 미백 에센스' 등 에센스 베스트셀러 7종도 50% 할인하며 봄나들이에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메이크업 라인인 '키스 해링'도 50% 할인한다.

이번에 처음 50% 할인하는 '피부 속 맑은 씨눈 에센스'는 씨앗 속 영양 주머니인 씨눈의 영양을 담은 미백 및 주름 개선의 2중 기능성 필수 에센스로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관리해준다. 주성분인 씨눈은 씨앗과 대비할 때 사포닌 및 이소플라본 등 효능 성분을 200% 이상 고농축 함유해 '씨앗 속의 영양 주머니' '씨앗의 정수' 등으로 불리는 영양의 보고다. 사포닌 및 이소플라본은 피부 미백과 탄력 개선에 도움을 줘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관리해준다.

또 이 제품은 1년에 단 한 달간만 채취할 수 있는 야생 토종콩을 사용해 일반 재배 씨앗에 비해 단백질 등 함량이 높고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씨앗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지난 1월 출시 이후 12만 개 이상 판매를 돌파하며 베스트셀러로 등극했다.

더페이스샵은 이번 할인행사 기간 동안 3만원 이상 구매한 회원에게 지정 기간 내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할인 쿠폰을 추가 제공한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봄 불청객, 머리카락 흔든다

황사·미세먼지 두피 모공 막아 탈모 유발…귀가 후 꼭 머리 감도록

따뜻한 봄날이 가까워오면서 봄의 불청객 황사에 대한 공포도 커지고 있다. 벌써 몇 달째 계속되는 초미세먼지도 골칫거리인데 황사까지 찾아오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건강 위협이 가장 큰 문제다. 황사 속에 포함된 초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심혈관계·호흡계 질환뿐 아니라 심하면 폐암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황사와 미세먼지는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두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오염물질이 두피 호흡 방해

봄철은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계절이기 때문에 두피에 각질이나 비듬이 늘어 탈모가 생길 위험이 높은 계절이다. 또 겨울 내내 차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움츠러 있던 두피의 모공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완되고 모근이 약해지는 것도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봄에 찾아오는 황사에는 초미세먼지와 각종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이 섞여있다. 이러한 물질들은 모발과 두피에 잘 달라붙어 두피의 모공을 막거나 염증을 유발시키고, 각질이나 비듬을 발생시킨다. 두피의 모공이 막히면 피지 분비와 혈액순환 등의 신진대사 기능을 떨어뜨려 두피의 호흡을 방해한다. 이는 결국 모발을 만드는 모낭세포의 활동까지 둔하게 만들어 모발 주기를 변하게 하고, 모발이 가늘어져 작은 자극에도 모발이 쉽게 빠지는 탈모로 이어진다.

따라서 만약 탈모를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탈모가 더욱 악화되기 쉽고, 모낭세포가 아예 파괴되면 영구 탈모로도 발전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외출시 모자 착용도 도움돼

먼저 평소보다 더욱 꼼꼼하게 신경 써서 두피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황사철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황사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내 집 안에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외출을 할 때는 모자를 착용해 두피를 보호하는 것이 좋다.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머리를 감아야 한다. 머리를 감기 전에는 빗을 이용해 머리카락에 묻어 있는 먼지를 털어내고, 머리를 감을 때는 10~15분 이상 시간을 들여 손가락의 지문을 이용해 두피를 닦아 낸다는 느낌으로 꼼꼼하게 감아야 한다. 모발 역시 평소보다 꼼꼼하게 거품을 내 세척해 완벽하게 오염물질을 털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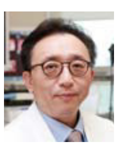
이규호 모아름 모발이식센터 원장은 "황사 속 초미세먼지는 두피의 모공을 막아 피지 분비나 혈액순환 등 신진대사 기능을 떨어뜨려 탈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젤·무스·왁스 등의 헤어제품을 사용하면 오염물질이 더욱 잘 달라붙기 때문에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홈플러스 '1000원 화분' 판매 홈플러스는 식목일을 열흘 앞두고 식목일맞이 미니 화분과 다육식물·채소 모종·초화 등을 1000원 균일가에 판매하는 화훼 대전을 27일부터 4월 2일까지 벌인다. /홈플러스 제공

이대병원 노영수 두경부암센터장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1000병상 규모의 첨단 국제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최근 잇따라 역량 있는 저명한 교수를 영입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최근 강동성심병원 일송두경부암센터장을 역임한 노영수(사진) 교수를 영입해 두경부암·갑상선센터 센터장으로 임명했다. 국내에서 두경부암 수술을 가장 많이 한 의사로 손꼽히고 있는 노 교수는 1979년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한림대 의대에서 의학박사를 취득했으며 미국 밴더빌트대, 홍콩대 퀸 메리병원에서 두경부 악성 종양에 대해 연수했다. 또 노 교수는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대한두경부종양학회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학술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순남 이화의료원장은 "제2부속병원의 성공적 개원과 조기 안정화를 위한 임상 및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의료진 영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명의로 소문난 노영수 교수 영입을 통해 새롭게 두경부암·갑상선센터를 개소하고 이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정혜인기자

KTX 타고 숲으로 1박2일 힐링 떠나요



코레일관광개발은 코레일과 산림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KTX-숲으로(路)'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이 상품은 삼림욕과 전국의 10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당일 일정과 1박2일 일정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기차여행상품이다.

매주 월·수·토요일 운행하는 당일 코스는 양평 산음·춘천 용화산·원주 백운산·무주 덕유산·장성 방장성자연휴양림에서 숲 탐방과 함께 산림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매주 목·일요일 운행하는 1박 2일 숙박 프로그램은 남해 편백·청도 운문산·장성 방장산·무주 덕유산·강릉 대관령·정선 가리왕산·평창 두타산자연휴양림과 재래시장 방문 일정이 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봄꽃 여행지 1위 '유채꽃 만발한 제주'

제주도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봄꽃 여행지로 꼽혔다.

인터파크투어는 최근 실시한 '올봄에 꼭 떠나고 싶은 여행지' 설문조사 결과 429명의 응답자 중 36%가 '노란 유채꽃 만발하는 제주도'를 최고의 봄나들이 장소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풍차와 튤립이 아름다운 네덜란드 여행'이 22%로 그 뒤를 이었으며 문화재도 보고 벚꽃 길도 걸을 수 있는 경주(18%)와 봄에 좀 더 매력적인 담양 여행(16%)도 많은 인기를 얻었다.

실제로 봄 나들이를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도 증가했다. 인터파크투어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출발하는 제주도 항공권과 숙박의 예약 건수가 전년보다 2.6배 늘어났다.

한편 인터파크투어는 매화·벚꽃 등 봄꽃의 개화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국내 '개화 지도'를 제공하고 인근 숙소를 추천하는 '꽃 피었네, 여행 가자' 기획전을 다음달 20일까지 실시한다. 예약자들을 대상으로



55명을 추첨해 봄 여행 교통비를 지원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며 5월 9일까지는 전국 벚꽃여행 명소를 모은 기획전도 이어진다. /황재용기자


4월 가장 기대되는 최고의 웰메이드 장르물 드라마!
살 아 있 었 네…
tvN 금토드라마
미스터리 감성 추적극
갑동이
매주 | 금토 | 저녁 8시 40분 tvN 방송 / 4월 11일 첫방송
윤상현 | 김민정 | 성동일 | 이준 | 김지원 연출 <너.목.들>조수원 | 극본 <로열패밀리>권음미

천혜의 인제 '유럽형 캠핑 빌리지' 짓는다

메트로신문 용대관광지에 조성 사업 추진
인제군·용대리 마을과 업무협력 협약 체결



26일 오후 1시 인제군청에서 메트로신문사 김종학(왼쪽 다섯째) 사장과 인제군 이순선(왼쪽 여섯째) 군수, 용대1리 손창수(왼쪽 일곱째) 이장이 용대관광지 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한 '관광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력 협약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강원 인제군 북설악 용대관광지에 유럽형 휴양지 스타일의 '캠핑 빌리지'가 들어선다.

메트로신문사와 인제군, 용대리 마을은 26일 오후 1시 인제군청에서 '관광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력 협약식'을 가지고 용대관광지에 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캠핑 빌리지는 인제 천혜의 환경을 바탕으로 한 자연 친화적인 복합 문화단지로 호텔, 리조트와 같은 숙박시설은 물론 인제가 자랑하는 솔밭에서의 캠핑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 수영장·카페·레스토랑 등과 같은 리조트 수준의 편의시설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숯가마·찜질방·어린이 놀이시설도 준비된다.

더욱이 수상스포츠와 같은 레포츠, 레크리에이션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아마추어 천문대 프로그램, 영어캠프와 같은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특히 메트로신문과 인제군은 캠핑 빌리지 연계 마케팅을 통해 지역과 캠핑 빌리지에 맞는 특화된 축제를 기획·개최한다.

또 황태·오미자 등 인제 5대 명품과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순선 인제군수는 이 자리에서 "땅이든 집이든 제 주인이 정해져 있는 법이다. 이제야 용대관광지가 제 주인을 만난 것 같다"며 "캠핑 빌리지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시설이 되길 바라며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학 메트로신문사 사장 역시 "캠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협력을 약속한 인제군과 용대리 마을에 감사드린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인제군이 발전하고 캠핑 빌리지가 국내 대표 복합문화단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아이슬란드서 온 보드카 '레이카' 세계 판매 1위 싱글몰트 위스키 글렌피딕(Glenfiddich)을 수입하는 윌리엄그랜트앤선즈코리아는 화산과 빙하의 땅 아이슬란드의 독특한 자연 환경에서 탄생한 수제 프리미엄 보드카 '레이카(Reyka)'를 26일 국내 첫 출시했다. /윌리엄그랜트앤선즈코리아 제공

'나들이 패션' 맨투맨T·데님 매출 활짝

롯데닷컴 1~20일 집계

4월 벚꽃 개화 시기를 앞두고 환절기에 입기 편한 나들이 패션이 인기를 얻고 있다.

온라인 종합 쇼핑몰 롯데닷컴에 따르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맨투맨 티셔츠·재킷·데님 등 봄 나들이 패션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닷컴 집계 결과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유니섹스 캐주얼 카테고리 판매 베스트 5 상품으로 각각 다른 브랜드의 맨투맨 티가 1위와 4위에 선정됐다. 작년에 이어 꾸준한 인기를 보인 데님 상품은 3위, 환절기에 입기 좋은 재킷과 야상 점퍼는 각각 2위와 5위에 올랐다.



특히 트렌치코트·카디건 코트 등 다양한 아우터의 매출이 눈에 띈다.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아우터의 판매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3%나 증가했다. 이와 함께 데님 상품군 역시 전년 동기 대비 판매율이 11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선 롯데닷컴 백화점팀 MD는 "작년 이 시기의 경우 야상 점퍼가 아우터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올해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재킷·아우터형 카디건·야상 등 다양한 봄철 아우터가 인기를 얻고 있다"며 "특히 맨투맨 티셔츠와 데님 패션은 작년 동기 대비 높은 판매 추이를 보이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하동 '화개장터 벚꽃축제' 손짓

홍익여행사 관련 상품
인근 여수투어도 할만

경상남도 하동군에서는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화개장터 벚꽃축제를 연다. 섬진청류와 화개동천 25㎞ 구간에서 봄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옛날 시골장터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화개장터·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지역 화합의 상징 남도대교 등도 볼거리다.

이번 축제는 오는 29~30일 화개장터 일원에서 개최되며 '화개장터'의 주인공 조영남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홍익여행사는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내놨다. ▲왕복 KTX 또는 무궁화호를 이용해 하루만 다녀오는 당일 상품 ▲여수 향일암 또는 금산 보리암을 둘러보고 매화마을을 다녀오는 무박 2일 상품 ▲여수의 명소를 함께 둘러볼 수 있는 1박2일 상품 등이 있다. 특히 오는 4월5일 단 하루 서울·수도권 여행객들을 위해 벚꽃전용열차를 운행한다.



상품 문의: 홍익여행사 02)717-1002 ·www.ktxtour.co.kr

/김학철기자 kimc0604@

강강술래 '먹은 양만큼 포장' 1+1 이벤트

홍대점 다음달 20일까지
온라인몰선 돈가스 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파격 할인 이벤트를 벌인다.

홍대점(02-3143-6635)은 4월 20일까지 매장에서 소고기류(한우스페셜·한우모둠구이·술래양념구이)를 시킨 고객에겐 한우불고기를, 돼지고기류(한돈·돼지양념구이, 생고기한판)를 시키면 돼지양념구이를 주문한 인분 수만큼 나갈 때 포장해준다(정식·세트메뉴 제외).

또 밤 9시 이후에 방문한 고객에게는 한돈·돼지양념구이, 생고기한판, 술래양념구이 메뉴를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추가 증정하며 한돈·돼지·술래양념구이 포장 상품도 1팩을 사면 1팩을 더 주는 '1+1행사'를 함께 벌인다.



고양 늘봄농원점(031-965-2300)도 4월 10일까지 매장에서 소고기류를 시키면 한우불고기를, 돼지고기류를 시키면 돼지양념구이를 주문한 인분 수만큼 나갈 때 포장해준다(정식·세트메뉴 제외).

이달 말까지 온라인 쇼핑몰(www.sullai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100% 국내산 돼지 등심 부위를 통째로 넣은 '통등심돈가스'(720g×3박스)는 3만1500원, 단백질과 칼슘이 우유보다 풍부해 성장기 아이에게 좋은 자연산 치즈를 사용한 '모짜렐라돈가스'(720g×3박스)는 3만78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metro entertainment E

"파격 노출신… 첨엔 출연 망설였죠"

오늘 개봉 '스케치' 고은아

연예계 데뷔 11년차, 올해로 스물일곱 살의 고은아는 더 이상 남의 시선에 움츠러들지 않았다. 27일 개봉하는 영화 '스케치'에 출연한 그는 자신의 몸매에 대해서도, 베드신에 대해서도 꾸미지 않은 생각 그대로를 털어놓았다.

안쓰러워 보이려고 다이어트

'스케치'에서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지녔지만 미술계의 비리와 권력에 타협을 거부한 대가로 화가로 데뷔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고독하게 지내는 수연 역을 연기했다. 거식증에 걸린 배역을 소화하기 위해 평소 체중에서 8kg이나 감량해 초췌한 모습으로 열연을 펼쳤다.

"촬영 전부터 체중 조절에 들어가 몸무게를 일주일에 4kg씩 뺐어요. 건강해 보이면 안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예쁘기보다는 안쓰러워 보이고 싶었죠. 기존 여배우들에 비하면 체구가 워낙 큰 편이라 살을 빼지 않으면 민폐가 될 것 같아 이를 악물었어요. 그

거식증 걸린 무명화가 열연
이 악물고 몸무게 8kg 감량
위가 줄어서 요즘도 1일 1식
데뷔 11년… 날 내려놓았다

영향으로 위가 줄어 요즘도 1일 1식을 하고 있답니다."

그만큼의 노력을 들여서인지 고은아는 수연의 감정이 관객에게 전해질 만큼 배역을 잘 소화했지만 정작 "완성된 영화를 보니 조금 더 살을 빼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아쉬워했다.

베드신, 남동생 미르 덕에 용기

개봉 전 박재정과 베드신을 찍으면서 상반신을 노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고은아는 영화가 그런 쪽으로 부각되는 게 못내 아쉬운 듯했다. 노출은 있지만 섹스 어필이 전혀 되지 않을 정도로 예쁜 감성으로 그려지는 작품이라는 것이다.

출연 전에는 노출신 때문에 망설였다고 털어놨다. 섹시 이미지로 어필하는 것도 달갑지 않았고, 무엇보다 최근 새 앨범으로 컴백한 아이돌그룹 엠블랙의 멤버이자 동생인 미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봐서였다.

"가족에게 눈치 아닌 눈치를 봐야 했는데 오히려 미르가 '누나 직업이 배우인데 왜 그런 걱정을 하느냐'라고 말해줘서 많은 용기와 힘을 얻었어요. 이 녀석 이젠 철들었네 하고 생각했죠. 하하하."

연예인 가족 장·단점은

엠블랙이 한류 그룹으로 큰 인기를 얻으면서 요즘엔 '미르의 누나'로 불리는 때도 많지만 호칭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서로가 고은아의 동생과 미르의 누나로 불리니까 더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평소 동생 사랑이 유난하기로 소문난 고은아는 "이번에 남매가 둘 다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나보다 동생이 잘됐으면 좋겠다. 해외 활동이 잦아질수록 몸이 말라가 안쓰럽지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며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함께 활동하는 단점도 있다고 털어놨다. "동생이 가수로 활동하고 최근 엄마도 가끔 방송에 출연하면서 가족 전체가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일부 네티즌이 가족 전체를 향해 인신공격을 하니까 참기가 힘들다"고 한층 높아진 목소리로 고충을 토로했다.





'가시' 많이 없어졌대요

열여섯 살에 CF 모델로 데뷔해 3년간 하이틴스타로 사랑받았고, 그 후 배우로 전업해 영화 '선데이 서울' '10억', 드라마 '황금사과' 등에 출연했다. 어느덧 데뷔 11년차가 된 경력에 스스로도 놀라워하면서 예전과 성격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가시가 많이 없어졌대요. 연예계 일을 하다 보니까 무방비로 있으면 나쁜 의도로 다가오는 사람이 많았어요. 상처를 받다 보니 피해의식이 생겨 나를 방어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지금은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포용하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나를 내려놓고 나서 많이 편해지고 차분해졌죠."

'스케치'에 대해서도 "2억원의 저예산으로 만들어진 영화라 솔직히 대박 날 작품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작위적인 것들에 길들여진 대중이 힐링할 수 있는 영화다. 예쁜 영화라는 말을 가장 듣고 싶다"고 기대를 당부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사진/한준희(라운드테이블)·디자인/박은지

원조 디바 귀환


이소라

그 이름만 들어도 설렌다

이선희·이은미 컴백 이어 이소라·박정현 등 줄줄이 무대로

폭발적인 가창력을 갖춘 원조 디바들이 돌아온다.

이선희·이은미·이소라·박정현이 일제히 앨범을 내고 격돌한다. 가요무대에서 좀처럼 모습을 보기 힘들었고, 앨범을 발표할 때마다 가요계에 돌풍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팬들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데뷔 30년차인 가수 이선희가 가장 먼저 테이프를 끊었다. 25일 정규 15집 '세렌디피티'를 발매하고 데뷔 30주년을 기념한다. 2009년 14집 이후 5년 만에 선보이는 신보는 대부분 이선희의 자작곡으로 채워졌다. 요즘 인기 작곡가인 이단옆차기·박근태·에피톤프로젝트 등이 현대적인 감각을 덧붙여 대중성을 높였다.

타이틀곡 '그 중에 그대를 만나'는 중독성 강한 멜로디로 깊은 울림이 전달되는 웰메이드 팝발라드로 박근태가 곡을 쓰고 김이나가 작사를 맡았다.

이은미는 26일 새 미니앨범 '스페로 스페레'를 발표하고 2년 만에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1980년대 후반 블루스밴드인 '신촌블루스'의 보컬로 음악 인생을 시작했던 이은미는 그동안 800회가 넘는 라이브 공연을 바탕으로 두터운 팬층을 확보했다.


이선희


이은미


박정현

신발을 벗고 무대에 올라 '맨발의 디바'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다. 2008년 발표한 '애인 있어요' 등으로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신보에는 '가슴이 뛴다' '괜찮아요' 등 5곡이 수록된다.

이소라는 3년 남짓한 공백기를 깨고 다음달 8일 정규 8집 '8'을 선보인다. 2011년 MBC '나는 가수다'로 주목받은 이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앨범 작업에 집중했다. 이소라는 앨범 제작 당시 사용했던 오선지 악보를 최근 인터넷에 공개하며 신곡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가창력과 풍부한 감정 표현을 갖추고 있는 박정현도 돌아온다. 이소라에 이어 2013년 '나는 가수다'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2012년 발표한 '패럴랙스' 이후 2년 만에 신보 '싱크로퓨전'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박정현은 26일 소속사 블루프린트 뮤직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강렬한 티저 이미지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강렬한 스모키 메이크업 눈매를 강조한 이미지에 '20140418 커밍 순 싱크로퓨전 리나 박+팀89'란 문구를 게재해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홀가분해진 가수 박효신

30억여원 채무 변제

가수 박효신(사진)이 전 소속사와의 다툼에서 발생한 30억여 원의 채무를 변제하고 컴백해 큰 짐을 덜게 됐다.

박효신은 최근 부산지방법원에 배상금 15억원과 법정 이자금 등 총 33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공탁해 전 소속사와 분쟁을 끝냈다.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여온 박효신은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지난달 채권자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박효신이 재정적으로 어려웠고 채무 규모가 커 회사가 나서 도움을 줘 법원이 판결한 채무를 갚을 수 있었다"며 "박효신은 마음의 짐을 덜고 앞으로 음악에만 매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박효신은 28일 3년3개월 만에 신곡 '야생화'를 발표하고 이후 7집을 발표한다. /유순호기자 suno@

봄날에 어울리는 고백송 들어보실래요?

이승환 정규 11집 '너에게만 반응해' 공개

뮤지션 이승환(사진)이 정규 11집 타이틀곡 '너에게만 반응해'로 사랑에 흠뻑 빠진 남성의 심경을 표현했다.

26일 공개된 이승환의 '너에게만 반응해'는 정규 11집 '폴 투 플라이'의 타이틀곡으로 한 번만 들어도 흥얼거리게 만드는 멜로디와 사랑에 빠진 남자의 마음을 위트 있는 노랫말에 담아낸 게 특징이다.

이승환 특유의 맑은 음색이 아기자기한 편곡과 청량감 넘치는 브라스 사운드와 한데 뒤엉켜, 따사로운 봄날에 듣기에 딱 어울리는 기분 좋은 고백송으로 완성됐다.

'너에게만 반응해'는 이승환이 지난 2년간 공연에서 종종 레퍼토리로 부르며 긴 시간 공을 들여 작업한 곡으로 작곡에 황성제, 편곡에 황성제와 돈스파이크가 참여해 힘을 보탰다. 또한 이 노래를 위해 미국 뉴욕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소은이 귀국해 녹음에 참여하기도 했다.

한편 이승환은 28~29일 올림픽공원 내 우리금융아트홀에서 '이승환옹 특별 회고전+11'이라는 타이틀로 단독 공연과 쇼케이스를 연다. 이후 전국투어를 이어갈 예정이다. /양성운기자 ysw@



2PM 준호 日 솔로투어

2PM의 준호(사진)가 일본에서 두 번째 솔로 투어에 나선다.

준호는 7월 3~4일 삿포로를 시작으로 14~15일 후쿠오카, 17~18일 나고야, 24~25일 오사카, 31일~8월 1·12~13일 도쿄에서 차례대로 공연한다. 지난해 7월 솔로 앨범을 발표하며 곡 작업은 물론 뮤직비디오 제작과 재킷 디자인, 안무 등을 직접 해낸 준호는 12회에 걸친 일본투어로 숨겨둔 역량을 마음껏 발산했다.



그는 두 번째 솔로 투어에 앞서 6월 18일 첫 번째 콘서트 DVD도 출시한다.

준호는 "지난 투어의 마지막 공연 때 다시 돌아오겠다고 팬들에게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키게 돼 기쁘다. 팬들과 호흡할 수 있는 멋진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순호기자



에릭남 두번째 티저 이미지 '익살 만점'

가수 에릭남(사진)이 두 번째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

26일 새롭게 공개된 티저 이미지는 첫 번째 티저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메이킹 미 크레이지'라는 심경을 고백하는 듯한 문구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특히 심플하지만 화사한 색감의 배경은 에릭남의 익살스러운 표정과 포즈를 더욱 돋보이게 만든다.

지난 1차 티저 이미지 공개 당시 에릭남의 신곡에 대한 많은 추측들이 나온 가운데 'SNL'을 모티브로 패러디 한 티저 이미지도 큰 관심을 끈 바 있어 신곡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 /양성운기자



CJ E&M
세상은 우릴 기억할거야
Musical
BONNIE & CLYDE
보니앤클라이드
2014.04.04 2차 TICKET OPEN
Ready for the hidden cast! Coming very soon!
보니앤클라이드의 숨겨진 캐스팅! 곧 공개 됩니다!
2014.4.15~6.29 BBC아트센터 | BBC홀
김봉환 서영주 김법래 엄기준 에녹 박성환 손준호 Key 박형식 주아 김아선 가희 오소연 외
Book by IVAN MENCHELL, Lyrics by DON BLACK, Music by FRANK WILDHORN
김병석,김선미 | 왕용범 | 이성준 | 홍유선 | Tobin Ost, 서숙진 | Michael Gilliam, 민경수 | 권도경 | 김유선 | 김지연 | Aaron Rhyne, 박준 | 임희정
하나투어 CJ E&M (주)엠뮤지컬아트 LOUN.G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하나 Free티켓 1566-6668 CJ E&M TICKET 1588-0688 YES24.COM 1544-6399 BBC아트센터 02-2056-5761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CJ E&M TICKET 1588-0688
Bonnie and Clyde is presented through special arrangement with Music Theatre International (MTI). All authorized performance materials are also supplied by MTI. 421 West 54th Street, New York, NY 10019 USA, Phone: 212-541-4684, Fax: 212-397-4684 www.MTIShows.com
bonnieandclyde.co.kr

김민아 아나 "난 구원투수"

'베이스볼 S' MC 발탁



지난주 프리 선언을 한 김민아(사진) 아나운서가 SBS 스포츠에 새 둥지를 틀었다.

김민아는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SBS 스포츠 2014 프로야구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신입 아나운서 황보미와 함께 '베이스볼 S'의 새 MC로 발탁된 소감을 밝혔다.

김민아는 스스로를 '구원투수'에 비유했다. 김민아는 "아줌마를 선택해준 SBS 스포츠의 용기에 감사하다"며 "야구 덕분에 아나운서가 됐고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러던 중 올 시즌도 야구 하이라이트를 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들어 포기했다"며 MBC스포츠 플러스 퇴사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던 중 SBS가 내게 손을 먼저 내밀어줬다"며 "많은 분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고 제가 왜 이 선택을 했는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6년 동안 MBC스포츠 플러스에 몸담았던 김민아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인 18일에 사표를 제출한 뒤 21일 SBS 스포츠와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아의 SBS 스포츠행은 퇴사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것이라 야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순철 해설위원, 정우영 캐스터, 황보미 아나운서 등이 참석해 올 시즌 각오를 밝혔다.

/김지민기자 langkim@

연예인 도전 아름답다

'우리 동네 예체능' '심장이 뛴다' 출연진 열정 시청자에 재미·감동





낯선 분야에 도전한 예능인들의 열정이 시청자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고 있다.

KBS2 '우리 동네 예체능'(이하 '예체능'·위 사진) 49회(25일)에서는 '예체능' 태권도단과 태극 태권도단의 첫 대결이 펼쳐졌다. 이날 경기는 성인 대결은 물론 어린이 대결조차 한 치의 양보 없이 치열했다.

첫 겨루기 대결은 4-2로 '예체능'의 패배로 끝났으나 대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줘 시청자도 함께 호흡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예체능' 측 관계자는 "출연진 모두 연습하는 분위기를 당연하게 생각한다"며 "녹화를 하지 않는 날에도 한두 달 이상 태권도 개별 연습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강호동은 어릴 때 태권도를 배웠다고 해도 습득 속도가 정말 빠르다. 연습량이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BS '심장이 뛴다'(아래)는 5명의 연예인(조동혁·박기웅·최우식·전혜빈·장동혁)이 현직 소방대원과 함께 근무하며 직접 응급 상황을 처리하는 공익적 차원의 방송이다. 최근 '모세의 기적 프로젝트'로 화제가 됐으며 예능과 교양의 적절한 조화라는 평가에 부합하는 착한 예능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방송에서 출연진이 더위에 소방복을 입고 탈진하며 인명 구조 훈련견과 짝을 이뤄 직접 교육하는 등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에 시청자도 함께 몰입한다. 실제 지난해 11월 출연진은 명예소방관에 위촉되기도 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CJ E&M 방송 콘텐츠 해외 공동제작 본격화



데이트 위드 K-팝 스타. /CJ E&M 제공

CJ E&M이 해외 방송사들과 손을 잡고 한류 열풍 확산에 나섰다.

최근 CJ E&M은 중국 내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의 인기에 힘입어 동방위성과 손을 잡고 현지 제작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나영석 PD와 제작진은 중국에서 워크숍을 열고 제작 기술을 전수하는 등 제작 컨설팅에 참여할 예정이다.

CJ E&M은 이를 "프로그램 포맷 패키지 수출"이라고 설명하며 "기존 해외 방송사와의 콘텐츠 공동 제작은 완성작을 직접 수출하거나 국내 제작진이 해외 방송사의 단기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형태에서 진화된 형태"라고 전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CJ E&M은 싱가포르 방송사 '미디어콥'과 함께 '데이트 위드 K-팝 스타즈'를 제작해 싱가포르 지상파 프로그램 동시간대 시청률 3위에 올랐다. 지난해에는 베트남 국영 방송사 VTV와 드라마 공동 제작 협약을 맺고 '오늘도 청춘'(가제) 제작에 돌입했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이미 폭스인터내셔널과 힘을 합쳐 'K-팝 스타 헌트'를 탄생시켰다. 'K-팝 스타 헌트'는 현재 네 번째 시즌 제작을 앞두고 있다.

CJ E&M 관계자는 "글로벌 합작 프로그램들은 우리 콘텐츠의 우수성과 제작 역량을 알리며 국가 간 문화 교류에 기여하고 있다"며 "방송 콘텐츠를 통한 새로운 한류의 확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민기자



'미스터 피터팬'



'역지사지 토크쇼-대변인들'

신동엽의 '피터팬' vs 김구라의 '대변인들'

내달 파일럿 프로 전쟁

KBS가 다음달 '미스터 피터팬'(4일)과 '역지사지 토크쇼-대변인들'(1일)을 통해 파일럿 프로그램 전쟁에 돌입한다.

19금 토크의 달인 신동엽은 '미스터 피터팬'(이하 '피터팬') 진행자로 가수 윤종신·김경호, 배우 한재석·정만식과 함께 출격 준비를 마쳤다. '피터팬'은 영원한 피터팬을 꿈꾸는 철부지 중년들의 토크쇼이며 출연자들은 중년 피터팬들에게 새로운 놀이 문화를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신동엽의 첫 리얼리티 예능 도전이라 시청자의 기대감이 높은 상태다. 또 현재 그는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는 전형적인 일중독 중년의 표본이라는 점에서 신동엽에 내재된 소년의 감성이 나온다면 방송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날 것이란 전망이다.

'역지사지 토크쇼-대변인들'에는 방송인 김구라와 가수 성시경, 조우종·유정현·오상진 등 전·현직 아나운서, 개그우먼 김지민과 개그맨 조세호 등이 출연한다.

이들은 국민 대표 대변인 '까7(칠)'로서 소통이 필요한 시대에 아이돌 노출 문제, 갑을 관계 등의 입장을 대변 줄 예정이다. 예능인이 출연하는 교양 프로그램으로 두 장르를 어떻게 조화할지가 관건이다. 김구라는 기자간담회에서 "내 자체가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다가가려는 마음이 있다. 이번 방송을 통해 더 소통하려고 한다"며 "독설이 재미있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면 시청자도 유쾌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각오를 전했다.

/전효진기자

공서영 '코빅' 마이크 잡는다



방송인 공서영(사진)이 tvN '코미디 빅리그'의 새로운 여성 MC로 발탁됐다.

현재 '코미디 빅리그'는 지난 23일 방송을 끝으로 올해 1쿼터 12라운드를 마친 상황으로 일주일 휴식기를 가진 뒤 2쿼터에 돌입할 예정이다.

공서영은 2쿼터 첫 방송인 다음달 1일부터 기존 MC인 신영일과 함께 '코미디 빅리그'를 진행하게 됐다.

김석현 PD는 "프로그램 이름에서 드러나듯 '코미디 빅리그'는 스포츠 경기와 같은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다"며 "스포츠 전문아나운서 출신으로 검증된 진행 실력을 갖춘 공서영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서영은 "'코미디 빅리그'는 매주 챙겨 보는 방송"이라며 "신영일 선배와 함께 호흡을 맞춰 녹화 현장의 활기를 안방까지 생생히 전해드릴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지민기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할렐루야'

성경 속 노아의 방주 다룬 '노아' 예수 일대기 그린 '선 오브 갓' 개봉

할리우드식 종교영화가 국내 극장가의 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다.

성경 속 '노아의 방주'를 스크린으로 옮긴 '노아'가 개봉 첫 주 100만 관객을 모으는 등 흥행 돌풍을 일으키는 가운데 예수의 일대기를 그린 '선 오브 갓'이 다음달 10일 개봉해 국내 관객과 만난다.

최근에 개봉하는 종교영화들은 종교적 해석을 강조한 이전 종교영화들과 달리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비종교인도 볼 수 있도록 오락적인 블록버스터의 형태를 띠고 있어 연이은 흥행이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노아'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1억3000만 달러(약 1393억8600만원)의 천문학적 제작비와 최첨단 기술력, 스타 배우들을 가지고 관객들의 입맛에 맞게 재탄생시켰다. 성경 속 대홍수와 거대한 방주, 수많은 동물들을 스크린에 실감 나게 구현했으며, 신의 사명을 받은 노아로 러셀 크로를 내세우고 인간적으로 재해석해 일반 관객들의 공감 폭을 넓혔다.

'선 오브 갓' 역시 '노아의 방주' '모세의 기적' 등 성경 속 이야기를 압도적인 스케일과 속도감 있는 전개로 풀어냈다. 할리우드 유명 제작자인 마크 버넷을 필두로 '영화음악의 거장' 한스 짐머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시각효과상을 수상한 컴퓨터그래픽(CG)팀이 합세했다.

더욱이 '선 오브 갓'은 이미 미국에서 대흥행을 기록했다. 원작 드라마가 1000만 명 이상의 미국 시청자들을 사로잡았고, 이 같은 인기는 고스란히 영화의 인기로 이어졌다. 미국 개봉 당시 전미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종교영화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는 남아있다. '노아'의 경우 일부 기독교인으로부터 영화가 성경의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포털 사이트 영화 평점 코너에서 0점을 받는 등 개봉 후 '평점 테러'를 받았다. 그러나 흥행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분위기라 '선 오브 갓' 역시 논란이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할리우드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다룬 크리스찬 베일 주연의 '엑소더스', 브래드 피트가 빌라도 역을 맡은 '본디오 빌라도' 등 성경을 소재로 다룬 영화들이 줄줄이 제작되고 있어 종교영화의 열풍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노아'



'선 오브 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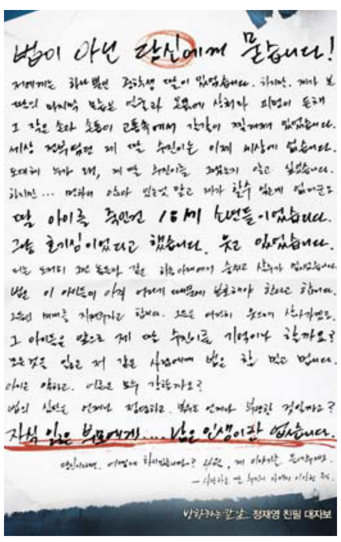
류승완 '인생은 새옹지마' 개봉

류승완 감독이 처음으로 제작한 단편영화 '인생은 새옹지마'(사진)가 다음달 17일 인디스페이스에서 개봉한다.

'인생은 새옹지마'는 테이스트메이커스에서 지원하는 젊은 예술가 프로젝트의 두 번째 작품으로 '부당거래' '베를린' 등 선 굵은 대작을 연이어 연출해온 류승완 감독이 제작에 참여한 단편영화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영화의 연출자인 김태용 감독은 단편영화 '얼어붙은 땅'으로 제11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제63회 칸 국제영화제 시네파운데이션 부문에 진출한 바 있다. 2011년에는 '복무태만'으로 미장센 단편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다.

이 영화는 철없는 젊은 부부와 이들에게 접근한 한 남자의 귀여운 로맨스를 그리며 고경표·이초희·안재민 등 신예 스타들이 주연을 맡았다. /유순호기자 suno@



'칼날' 정재영 친필 대자보 공개

다음달 10일 개봉 예정인 영화 '방황하는 칼날'에 출연하는 정재영이 배역과 관련해 아버지의 절절한 심정을 대변한 친필 대자보를 공개해 화제다.

한순간에 딸을 잃고 살인자가 돼버린 아버지 상현 역을 맡은 정재영이 배역의 입장을 담아 직접 작성한 대자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및 온라인 커뮤니티뿐 아니라 서울지역 대학교 내 게시판에도 부착됐다. 실제 아버지가 작성한 듯한 절절한 감정을 담은 이 대자보는 많은 네티즌 및 대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정재영은 대자보를 직접 작성하면서 실제로 상현이 된 듯 시종일관 진중한 모습을 잃지 않았으며, 너무 집중한 탓에 땀까지 뻘뻘 흘리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탁진현기자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예상 밖 흥행

하루 1만6000명 관객 동원… 박스오피스 3위 올라

독일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사진)이 예상 외의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25일 하루 1만5938명을 모아 일일 박스오피스 3위에 올랐다.

'노아'(7만9528명), '우아한 거짓말'(3만1133명)에 이은 성적으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논스톱'(1만1030명), '300: 제국의 부활'(1만1023명)을 제쳤다.

누적 관객 수는 11만4978명으로 개봉 6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최종 35만 관객을 모은 '미드나잇 인 파리'와 동일한 흥행 속도라 향후 더 많은 관객 동원이 예상된다.



개봉 첫날 58개의 소규모 개봉관으로 선보여 박스오피스 6위로 출발했으나 영화에 대한 호평이 입소문을 타면서 빠르게 순위가 상승했다. 이에 힘입어 상영관 수도 26일 현재 139개로 늘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지난해 베를린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수상작이다. 세계적인 부호 마담 D.(틸다 스윈튼)의 죽음을 둘러싼 호텔 지배인 구스타브(랄프 파인즈)와 로비보이 제로(토리 레볼로리)의 미스터리한 모험을 그렸다. /탁진현기자

신은경 '설계'로 스크린 복귀

배우 신은경(사진)이 영화 '설계'로 4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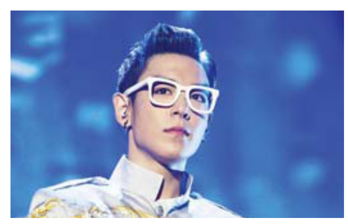


이 영화에서 신은경은 피도 눈물도 없는 팜므파탈 사채업자 세희 역을 맡아 17일 촬영을 시작했다. '두 여자' 이후 4년 만의 영화 출연이다. 신은경은 가족과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간 사채업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밤의 세계로 몸을 던지는 역할을 연기하며 냉혹한 카리스마를 보여줄 예정이다.

영화는 전화 한 통이면 수천억원이 오고 간다는 사채업계의 거물 삼인방을 소재로 그려낸 서스펜스 누아르물이다. 세희의 사채업계 장악을 어둠 속에서 도와주는 용훈 역에는 강지섭이, 세희에게 영혼마저 팔아버린 뇌쇄적인 악녀 민영 역에는 오인혜가 낙점됐다.

박창진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영화는 상반기 개봉 예정이다. /탁진현기자

탑 스페셜 에디션 999장 예약 판매 30분만에 매진



빅뱅의 탑(사진)이 처음으로 출시하는 영상집 스페셜 에디션이 30분 만에 매진됐다.

영상집 '1st 픽토리얼 레코즈 프롬 탑'은 스페셜 에디션과 일반판으로 나눠 다음달 9일 출시되며, 탑과 포토그래퍼 홍장현의 친필 사인이 들어 있는 999장의 스페셜 에디션은 26일 오전 YG e-숍에서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지 30분 만에 매진됐다. 일반판 예약 판매는 다음달 1~8일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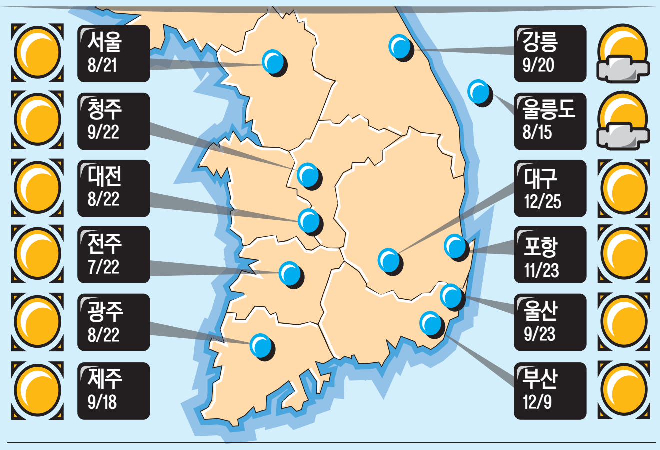
이번 영상집은 지난해 12월 뉴욕에서 일주일간 홍장현과 함께 제작됐다. 무대와 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탑의 다양한 모습이 담긴 이번 영상집은 약 400페이지의 화보와 한 편의 영화와 같은 영상으로 제작됐다.

한편 탑은 1월부터 영화 '타짜-신의 손' 촬영에 한창이다. 올해 하반기 개봉될 이 영화에서 탑은 전 편에서 조승우가 연기했던 고니의 조카 대길 역으로 출연한다. /유순호기자

날씨

3/27 木 일출시각 06:26 일몰시각 18:5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일교차가 큰 날 갑자기 숨이 차거나 기침, 가래가 심해지면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받아야 합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밥맛은 돌솥밥이 최고다?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밥은 우리 밥이 제일 맛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것이 동남아의 푸석푸석한 쌀로 지은 밥이나 중국의 쪄낸 것 같은 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물론 한국인이니까 우리 밥이 제일 맛있다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자아도취에 빠져서 하는 소리만도 아니다. 청나라 초기의 학자였던 장영 역시 "밥 짓는 기술은 조선이 최고"라고 인정했다. 재료인 쌀도 좋아야 하지만 불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야 하는데 끓이고 뜸 들이는 기술은 조선인이 으뜸이라는 것이다.

밥맛 좋다는 우리 밥 중에서도 진짜 맛있는 밥은 어떤 밥일까? 현대인들은 시골 고향집에서 먹었던 가마솥에 향수와 추억이 담겨있으니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가마솥 밥을 그리워하지만 옛날 조상님들은 돌솥밥을 제일로 꼽았다.

조선 후기, 영조 때 발행된 증보산림경제에는 밥 지을 때는 돌솥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다음은 무쇠로 만든 가마솥이며 다음이 놋으로 만든 유기 솥이라고 했다. 규합총서에도 밥솥으로는 돌솥이 으뜸이라고 했으니 조선시대에는 가마솥보다 돌솥에 지은 밥을 더 좋아했던 모양이다. 지금과 달리 솥의 재질과 제조기술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조선의 왕과 양반은 주로 돌솥밥으로 식사를 했다. 임금님의 수라 짓는 솥은 새옹이라는 조그만 곱돌솥에 꼭 한 그릇만 짓는데 숯불을 담은 화로에 올려놓고 은근히 뜸을 들여 짓는다. 이렇게 먹는 돌솥은 개인 밥솥이었으니 특정인의 것이라고 구분해놓을 필요가 있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대부들은 돌솥에 자신이 좋아하는 문구나 시 구절을 적어 자신의 밥솥임을 표시했다. 시를 감상하면서 먹는 밥은 맛이 어땠을까?

/음식문화평론가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8	
	7		8			4	6	
2		3		9		5		
8	2			3	1			5
4			7	8			1	2
		4		7		1		8
	5	2			8		4	
	9		5					

						6		4
			5		7	3	1	
			4	9		8	5	
4		6				5	8	1
				5				
1	5	7				4		2
	7	1		8	2			
	4	9	7		3			
3		2						

스도쿠 정답

6	4	9	1	5	7	2	8	3
5	7	1	8	2	3	4	6	9
2	8	3	6	9	4	5	7	1
8	2	6	4	3	1	7	9	5
9	1	7	2	6	5	8	3	4
4	3	5	7	8	9	6	1	2
3	6	4	9	7	2	1	5	8
7	5	2	3	1	8	9	4	6
1	9	8	5	4	6	3	2	7

7	9	5	8	3	1	6	2	4
6	8	4	5	2	7	3	1	9
2	1	3	4	9	6	8	5	7
4	3	6	2	7	9	5	8	1
9	2	8	1	5	4	7	3	6
1	5	7	3	6	8	4	9	2
5	7	1	6	8	2	9	4	3
8	4	9	7	1	3	2	6	5
3	6	2	9	4	5	1	7	8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공기업쪽 도전하고 싶은데… 외국어공부 먼저, 회사 갈듯

따뜻한날들 여자 87년 12월 26일 오후 3시 10분

Q 3년 정도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공부가 잘 안되어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 쪽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곳에 일단 취업을 한 후 내년에 공단 쪽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올해 및 내년에 취업운이 있을까요? 어떤 직종을 해야 할지 올해 연애운은 어떤가요??

A 직업을 택할 때 노동청이나 적성 분석하는 곳에 가서 알아보는 방법도 있으나 특출한 사람이 아닌 이상 아무리 적성 검사를 해도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대학에서 전공 학과만 해도 350개가 넘고 노동부에서 분류해놓은 우리나라 직업 종류만 해도 2만5000개가 넘습니다. 명리학상으로 보는 격은 살아가는 인생의 근본이고 사회성입니다. 편재격(내가 극함)으로 수호신은 편인(나를 생해주는 오행)이며 이것은 성공을 위해 추구할 요소가 되며 체질적인 것은 식상(내가 생해주는 오행)으로서 재능과 주특기를 말합니다. 공직보다는 기업 쪽으로 가게 되면 취업이 가능하니 일단은 외국어 공부하며 준비하십시오.

작은가게 운영 남편 잘될까 심성 착한데 귀가 엷어 조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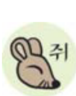
naksum 여자 78년 10월 7일 음력 오후 5~7시
남자 79년 7월 20일 양력 새벽 3시

Q 올해 공부(교육 관련)를 시작하였는데 몇 년 뒤 졸업을 하게 되면 전공을 살려서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남편도 형제들과 합심하여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가 늘 있었던 지라 제가 늘 노심초사합니다. 남편 사업이 별탈 없이 잘 될지요.

A 사주 조합의 배열에서 양쇠음성(陽衰陰盛)으로 자력으로 일어서야 하는데 사주에는 운명과 숙명이 있으니 극복해가야 하는 것도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재물의 운이 당분간은 쇠지(衰地)에 있으나 40세 이후부터는 발복하게 되므로 뜻한 바대로 초지일관하여 상당히 발전하게 됩니다. 형제간에 의견이 분분해도 서로의 이익을 위해 독단적으로 나가려는 기질보다는 합심을 하고 과감한 양보를 하십시오. 앞으로 다가오는 운의 향방이 미래를 말하는 것인데 남편은 천지합덕(天地合德)하는 명으로 심성이 착하고 가정에 충실한데 박력이 약하여 대업을 이루기는 힘들고 귀가 엷어 손해를 보는 일이 있으니 매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3월 27일 (음 2월 27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배우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60년생** 아등바등 해봐야 후회만 남는다. **72년생** 운기가 열렸으니 밀어붙여라. **84년생** 저질러봐야 비로소 알게 된다.



49년생 운기가 길해 만사 평화롭다. **61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었으면 결말을 볼 것. **73년생** 떼쟁이 자녀 때문에 속 끓는다. **85년생** 상사가 오냐오냐 할 때 예의 갖춰라.



50년생 마음의 병은 떨쳐버려라. **62년생** 화려한 무대에 설 기회 온다. **74년생** 욕심부려서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라. **86년생** 감언이설에 선동되면 망신만 당한다.



51년생 큰소리치면 손해만 본다. **63년생** 동료의 견제구의도 잘 파악할 것. **75년생** 성난다고 할 말 다하면 후회만 남는다. **87년생** 기회가 왔으니 큰 걸음 준비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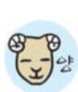
52년생 문서 일은 시간이 필요~. **64년생** 매매와 관련된 일은 성사된다. **76년생** 어렵다고 징징대지 말고 자신을 믿어라. **88년생** 불안정했던 마음은 안정이 된다.



53년생 미련은 마음만 아프게 한다. **65년생** 운전으로 인한 사고 조심~. **77년생** 욕심부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 **89년생** 연인 선물 준비에 즐거운 하루~.



42년생 아랫사람에게 말조심할 것. **54년생**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66년생** 생각도 못 한 공돈이 생겨 야호~. **78년생** 의지만 있으면 하늘도 돕는다.



43년생 남을 도울 수 있어 즐겁다. **55년생** 마음이 예쁜 자녀 때문에 울컥~. **67년생** 정신력이 승패 좌우한다. **79년생** 부자가 되는 지름길은 없음을 명심할 것.



44년생 작은 수익이 생겨 야호~. **56년생** 판박이 자녀 때문에 웃음이 터진다. **68년생** 정보는 옥석을 가려서 수용할 것. **80년생** 야심을 펼칠 기회가 다가온다.



45년생 순리에 어긋난 말은 독이다. **57년생** 오락가락 배우자 때문에 부글부글~. **69년생** 여기저기 오라는 곳이 많아 바쁘다. **81년생** 변수가 있어도 생각대로 할 것.



46년생 술로 인한 탈 조심~. **58년생** 밖으로 나가면 기분전환에 좋다. **70년생** 갑작스러운 변동보단 현상 유지가 좋음~. **82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야망을 키운다.



47년생 사소한 일이 즐겁게 한다. **59년생** 쓴 것이 나가고 단 것이 들어오는구나. **71년생** 참고 기다리면 진심은 통한다. **83년생** 동료와의 마찰은 가능한 한 피하라.

<연봉>

임창용 5억+α 삼성 복귀

4시간30분 협상 끝 사인 7년만에 한국 무대 밟아



임창용(38·사진)이 7년만에 친정팀 삼성 라이온즈로 돌아온다.

미국프로야구 시카고 컵스에서 방출된 임창용은 26일 삼성 2군 훈련장 경산볼파크에서 연봉 5억원에 입단 계약을 했다.

플러스 옵션이 있지만 양측 합의하에 금액과 조건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 2007년 11월 일본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스에 입단하며 삼성을 떠난 임창용은 6시즌을 일본과 미국에서 뛰고 삼성으로 돌아왔다.

복귀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입단 협상도 진통을 겪었다. 임창용은 이날 경산볼파크에 도착해 송삼봉 삼성 단장과 4시간30분간 이야기를 나눈 후 계약서에 사인했다.

컵스는 공식 발표 전인 24일 임창용에게 방출 사실을 미리 알렸으며, 23일 마이너리그행 통보를 받고 구단에 방출 요청을 했던 임창용은 컵스의 언질을 받고 나서 곧바로 짐을 쌌다.

임창용은 25일 한국으로 들어왔고 다음날 곧바로 삼성과 입단 협상에 나섰다.

일본과 미국에서 중간계투와 마무리로 풍부한 경력을 쌓은 임창용은 오승환의 일본 진출로 다소 힘이 떨어진 삼성 불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창용은 "마침내 집에 돌아온 기분이다. 전력을 다해 팀을 위해 던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26일 오후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3차전 부산 KT 소닉붐과 창원 LG 세이커스의 경기에서 LG 문태종이 KT 송영진을 피해 슛을 시도하고 있다. /뉴시스

LG 13년만에 챔프전

농구 4강 PO 3차전 제퍼슨·문태종 40점…KT에 3연승

프로농구 창원 LG가 부산 KT를 상대로 3전 전승을 거두며 13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 진출에 성공했다.

LG는 26일 부산사직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KT와 맞붙어 96-82로 승리했다.

이날 LG의 데이본 제퍼슨과 문태종은 각각 25점, 15점을 기록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로써 LG는 다음달 2일부터 4강 플레이오프 울산 모비스와 서울 SK 중 승리한 팀과 챔피언 결정전(7전4승제)을 치른다.

승리의 여신은 초반부터 LG의 편이었다. 제퍼슨은 1쿼터에만 10점을 내리 꽂았고 문태종과 김시래가 거들며 28-18로 기선을 잡았다.

반격에 나선 KT는 2쿼터에 조성민을 투입해 13점을 기록, 아이라 클라크가 25점을 거들며 KT는 36-45로 점수 차를 좁혔다.

KT는 3쿼터에 기세를 몰아 추격에 나섰다. 조성민은 쿼터 종료 45초 전 슈팅 파울을 얻어 자유투 3개를 모두 성공시켜 5점 차까지 따라잡았다. 하지만 LG는 4쿼터 초반 유병훈과 박래훈이 연달아 3점슛을 넣어 73-63으로 다시 격차를 벌렸다.

LG는 기세를 몰아 KT의 득점을 차단해 14점차로 점수를 벌리면서 96-82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김지민기자 langkim@

프로농구 PO 전적 26일

KT	18	18	27	19	**82**
LG	28	17	23	28	**96**

여자농구 챔프전 전적 26일

우리은행	12	19	15	12	**58**
신한은행	15	8	17	14	**54**

추신수 시범경기 첫 멀티히트… 타격감 회복중



미국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2·사진)가 다시 타격감을 끌어올렸다.

추신수는 26일 미국 애리조나주 굿이어 볼파크에서 열린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시범경기에 1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0.146까지 떨어졌던 타율은 이날 멀티히트로 0.173으로 높아졌다.

추신수는 1회 첫 타석에서 우전안타를 때렸고, 아드리안 벨트레의 안타 때 홈을 밟았다. 3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중견수 방면으로 2루타를 뽑아냈다. 1사 후 프린스 필더의 투수 앞 땅볼 때 3루로 나갔으나, 후속타 불발로 홈에 들어오지는 못했다.

5회에는 뜬공으로, 7회에는 유격수 땅볼로 물러났다. 텍사스는 5-0으로 승리했다. /유순호기자 suno@

프로축구 전적 26일

경남	1	0	인천
△ 득점= 권완규①(전26분·경남)			
전남	1	0	울산
△ 득점= 스테보②(전6분·전남)			
전북	1	3	포항
△ 득점= 유창현②(전23분) 이명주②(후17분) 김승대①(후25분·이상 포항) 카이오①(전5분·PK·전북)			
서울	2	0	제주
△ 득점 = 고요한①(후23분) 윤일록①(후28분·이상 서울)			
성남	2	0	수원
△ 득점 = 바우지비아①(전21분) 김철호①(전36분·이상 성남)			
부산	1	1	상주
△ 득점= 이상호①(전39분·상주) 양동현③(후44분·부산)			


NCSI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6년연속 소주부문
국가고객만족도 1위
어느
부드러운 봄날
처음처럼
HAPPY SHAKE!
흔들어 마시는 물이 좋은 소주
처음처럼
부드러운 18도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